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향 아

2015년 8월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指導教授 현 승 환

박 향 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년 8월

박향아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8월

<국문초록>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나타난  
서사무가 활용 양상 연구

박 향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는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창작 된 만화 『신과 함께 : 이승편』을 분석함으로써 서사무가에 드러난 민중의 가치관이 『신과 함께 : 이승편』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활용된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 : 이승편』을 소설분석방법론으로 비교·분석하여 서사무가의 구체적인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선 『신과 함께 : 이승편』은 ‘집’을 중심으로 등장인물과 요소들이 갈등을 이루며, 그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 대립 관계를 미시적 대립과 거시적 대립으로 보고, 좁게는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에서 넓게는 이승과 저승의 대립에 이르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작가의 현실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한 결과, 오늘날 주거공간의 변화를 재개발 문제와 엮고, 철거민과 가택신의 위기와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공간의 중요성을 전달함과 동시에 부조리한 사회, 대립적 삶의 모습 그리고 인간사회의 해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속 서사무가의 활용 및 변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서사 측면에서는 작품에 활용된 부분이 많지 않았으며, 주로 신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가택신앙을 중심

으로 그들이 좌정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공간의 변화와 그 변화에서 파생되는 의례 대상의 부재 혹은 신앙심의 약화와 같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또한 실제성을 갖는 사회문제들을 사건화하면서 『신과 함께 : 이승편』이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그레마스의 이항대립구조에 작중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대입해본 결과, 『신과 함께 : 이승편』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 현실을 벗어난 이상 세계의 모습을 독자들이 그려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과 함께 : 이승편』이 사회문제의 활용과 캐릭터의 입체화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비롯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보여주면서 서사무가가 가지고 있는 민중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범위 및 방법 .....	7
II. 『신과 함께 : 이승편』의 서사 전개 양상 .....	11
1. 미시적 대립과 거시적 대립 .....	15
2. 사회적 소외계층의 궁핍과 무관심 .....	25
III. 작가의 현실 인식과 서사무가의 변용 .....	30
1. ‘집’ 중심의 공간성 .....	30
2. 서사무가의 변용 .....	33
IV. 『신과 함께 : 이승편』의 서사무가 활용 양상 .....	65
1. 욕망과 갈등에 따른 서사 .....	65
2. 내용과 형식의 변용 .....	67
V. 결론 .....	73
<참고문헌> .....	76
<Abstract> .....	79

## <그림 목차>

<그림 1> 등장인물과 요소들의 연결 관계 .....	16
<그림 2> 오늘날의 주거 공간1 .....	36
<그림 3> 오늘날의 주거 공간2 .....	36
<그림 4> 오늘날의 주거 공간3 .....	37
<그림 5> 오늘날의 주거 공간4 .....	37
<그림 6>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성주단지 .....	38
<그림 7> 부역과 축신의 관계 .....	49
<그림 8> 집의 배치도 .....	50
<그림 9> <이승편>의 이항대립구조 .....	66

## <표 목차>

<표 1> 집의 공간배치와 가택신의 자리 .....	46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 : 이승편』을 비교하여 작품 속 서사무가 요소들의 변용 및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함과 동시에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서사무가란 무당이 굿에서 신의 일생과 내력을 비롯한 행적을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무당이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巫歌)이면서 인물의 행적을 노래하므로 서사성(敘事性)을 띤다. 무속의례에서 무당이 노래로 부르는 무신의 일생담으로 무속신화라고도 하며, 제주에서는 신의 근본을 풀어낸다는 뜻으로 본풀이라 한다.

서사무가는 세속과 범속의 대비를 지우고 본다면 삶의 지난한 여정을 다룬 이야기체이기도 하다. 물론 인물들이 겪는 고난들은 신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기도 하지만, 삶의 다양한 여정들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독해<sup>1)</sup>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속에는 인물이 존재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 이야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의미를 형성해 낸다. 그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알게 모르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가치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일이고 그 가치의 문제는 궁극에 가서는 인간의 삶의 기준, 방향, 의미, 이상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사무가는 민중의 신앙·관습·생활·사상·의식구조·가치관을 반영하며, 한 민족이 지닌 문학적 창조력의 바탕으로서, 여러 형태의 기록 문학을 산출하는 데 근간이 되는 민족문학이다.<sup>2)</sup> 이처럼 서사무가는 과학이나 역사가 제시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문학이다.

1) 황인순, 「제주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32, 한국기호학회, 2012, p.1.

2) 현월필,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연구 : 제주서사무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



융은 자신의 저서에서 심적요소란 “객체정신, 즉 의식 내용의 선형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결정짓는 작용은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전승과는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비슷한, 심지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상된 형상들을 보장한다. 이에 대한 주된 증거의 하나는 신화적 주제의 보편적인 유사성인데, 나는 이것을 그들이 지닌 원초상(原初像)으로서의 성질에 의거하여 원형(原型, Archetypen)이라고 불렀다.”<sup>3)</sup>라고 언급하였다. 즉 아키타입은 원초적 유형, 즉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sup>4)</sup>을 뜻하며, 신화, 전설, 민담을 통해 그 양상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서사무가와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의 비교·분석은 유사한 이미지의 반복을 찾아냄으로써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삶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이원적 공간으로 연결된다. 삶의 공간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그 규모에 따라 안방, 가정, 마을, 지역 등의 공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죽음의 공간은 안방 밖, 가정 밖, 마을 밖의 공간으로 사후세계를 비롯해서 인간이 죽게 되면 묻히게 되는 공간<sup>5)</sup>으로 인식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 ‘공간’은 단순한 장소로서의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을 수호하는 신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고, 집의 구성원들이 신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를 올리는 행위로 확대된다. 즉 가택신앙<sup>6)</sup>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믿음이 깃든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속신앙은 대개 미신으로 평가받는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꽤 오래 전부터 무당이 사회적으로 천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서구지향 일변도로 진행된 개화기 이후의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무당은 본래부터 천

3) C. G. 융,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p.177.

4) C. G. 융, 위의 책, p.107.

5) 표인주, 「가택신앙 신격의 질서체계와 변동양상」, 『목포대학교 어문학』2, 목포대학교, 2000, p.165.

6) 가택신에 대한 용어는 이전부터 가신, 가택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고, 가정신, 가신신앙, 집안 신앙 등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신과 함께: 이승편』에서 언급된 가택신앙(혹은 가택신)을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가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당당한 문학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7)</sup> 이렇듯 무속신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그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좁게는 서사무가에 서 넓게는 고전문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나는 고전문학을 시대적 개념으로서 고대의 문학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대마다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가치 개념으로 주목하는 길이며, 둘은 디지털 시대를 현대라고 하는 동시대의 첨단기술 개념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상황이 빚어내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서 디지털 문화를 주목<sup>8)</sup>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서사 표현매체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까지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표현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매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신화와 전설을 문자 중심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상상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상상은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드라마, 영화, 게임의 가상 현실세계가 되고 있다.<sup>9)</sup>

해외에서는 켈트신화를 바탕으로 한 <해리포터>와 북유럽 신화를 소재로 한 <반지의 제왕>이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서사무가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미비하게나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여러 서사무가 작품들 중에서도 <바리데기>가 소설, 연극, 만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재창작되어 독자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서사무가를 소재로 한 창작물의 등장과 함께, 서사무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연, 전시도 열리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만화박물관이 공동으로 ‘만화, 神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 전시에는 민속신앙을 소재로 한 만화와 민속 유물 90여 점이 소개되었다. 바리데기를 만화로 그린 윤태호의 ‘영혼의 신 바리공주’, 무당의 퇴마 기행을 담고 있는 이빈의 ‘마나’, 무당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되면

7) 박경신, 「무가의 이해」,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1, p.305.

8)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제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p.35.

9) 한교경,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p.94.

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이은의 ‘분녀네 선물가게’, 한국 전통 신화를 소재로 한 주호민의 ‘신과 함께’ 등 여러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전시 작품 중 하나이기도 했던 『신과 함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웹툰<sup>10)</sup>으로 2010년 연재를 시작하였다. <저승편>을 시작으로 <이승편>과 <신화편>이 연재되었고, 2015년 현재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만화 잡지에 리메이크되었다. 『신과 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각각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승편>은 39살에 생을 마감한 소시민 김자홍이 저승에서 49일 동안 재판받을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 권선징악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승편>은 철거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그린 이야기로, 개발로 인한 전통주택의 와해를 막아내기 위한 가택신의 고군분투와 철거민들의 삶과 죽음을 보여준다. <신화편>은 앞서 <저승편>과 <이승편>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그들의 과거를 서술하는 듯 구성하여, 우리의 신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 중에서도 <이승편>은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신들을 인격화하여 현실적으로 그려냈으며, 오늘날 대두되는 사회문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 즉 집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집을 지키는 신들의 이야기를 괴리감 없이 그려냈다. <저승편>이 현대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후세계를 재치있게 그려내어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반면, <이승편>은 ‘신’이라는 존재를 현실세계에 등장시켰으며, 그들을 ‘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두지 않고, ‘현신’이라는 설정을 통해 보통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신들의 존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과 함께 빠른 발전에 의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우리의 전통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과 함께』 중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승편>을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여 서사무가와 비교·분석을 통해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0) 웹툰은 ‘web’과 ‘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이라는 환경적인 특성에 맞춰 만들어진 만화이다. 웹툰은 web이라는 기술적 환경 위에서 제작·배포되는 만화를 일컫는다. 웹이라는 디지털기반의 환경을 이용해 만화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인터넷만화’ 혹은 ‘온라인만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스크롤만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임혜선, 「강풀의 웹툰 『순정만화』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11.

## 2. 선행연구 검토

『신과 함께』는 2010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저승편>을 시작으로 웹툰 연재를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이승편>이 2012년에는 <신화편>이 각각 연재되었다. 최근에 창작된 작품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진한 편이다.

『신과 함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저승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이승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저승편>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명옥<sup>11)</sup>(2014)의 텍스트 전개에서 드러나는 갈등에 관한 연구와 노혜영<sup>12)</sup>(2014)의 작품 속 희극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강미선<sup>13)</sup>(2011)의 작품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승편>과 관련된 연구로는 정수희<sup>14)</sup>(2012)의 전통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과 유예<sup>15)</sup>(2015)의 원천소스로서의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 될 『신과 함께 : 이승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수희(2012)는 『신과 함께 : 이승편』이 가택신앙을 소재로 하여 현대의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재해석하고 이를 대중성과 사회성을 가진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작품의 구체적인 콘텐츠 분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콘텐츠의 효과적인 변용과 활용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승편>의 사건구성을 가정신앙 주체의 위기, 공간의 위기, 가족구성원의 위기로 나누어 민속학적 개념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가정신앙 주체의 위기는 사제자로서의 여성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하며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사제자의 부재를 신들로 하여금 ‘현신’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다.

11) 이명옥, 「신과 함께 : <저승편>에 드러난 갈등과 갈등해소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2) 노혜영, 「웹툰 <신과 함께>에 나타난 희극성에 관한 연구 : 저승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3)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웹툰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5권,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1.

14) 정수희, 「전통문화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 웹툰 <신과 함께-이승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제2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15) 유예, 「원천소스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 : 웹툰 <신과 함께>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공간의 위기는 ‘집’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개발’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집의 구성원과 집을 지키는 가택신의 투쟁을 촉발하게 되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위기는 다른 가족들을 잃고 할아버지와 손자만 남은 상황에서 할아버지마저 저승차사들이 데려가고자 하는 상황을 위기로 보고, 그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서사무가라는 소재와 웹툰이라는 매체와의 적절한 결합의 결과와 더불어 SNS를 통한 작가와 독자 간의 교류를 작품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유예(2015)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무속신앙 콘텐츠 개발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의 무속신앙 콘텐츠들 대부분이 무속신앙을 단순한 자극적 요소, 1차원적 요소로 사용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6)</sup>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무속신앙의 가치를 밝히고, 『신과 함께』 <저승편>과 <이승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무속신앙 원천소스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극이 없는 곳의 특성을 살려 향유자에게 ‘선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극적인 콘텐츠와의 차별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무속신앙 활용방안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무속신앙의 원천 소스를 가시적·비가시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추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속신앙 서사의 현재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캐릭터의 재해석 및 현대적 시공간의 활용을 예로 설명하였다. 셋째는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설득력을 부각하는 것으로, 『신과 함께』가 캐릭터와 배경의 친근함으로 독자의 거부감을 약화시키며 역사성에 바탕을 둔 공감대 형성을 가능케 했음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속신앙의 지혜 대중화를 주장하며, 무속신앙에 대한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신과 함께』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그 동안의 연구에서도 <이승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정수희(2012)와 유예(2015)의 연구뿐이며, 그나마도 유예(2015)의 연구가 <저승편>과 <이승편> 모두를 논의하여, <이승편>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정수희(2012)의 연구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를 비교하여 논의한 바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분석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서사무가와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보다는 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서사무가 요소를 찾고, 작품 창작 원천으로서의 서사무가의 활용

---

16) 유예, 위의 논문, p.15.

방향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 3.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신과 함께 : 이승편』과 경기무가 <성주풀이>, 제주도 무가 <문전본풀이>를 기본 텍스트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주도 무가인 <차사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를 텍스트로 활용할 것이다. 우선 <이승편>의 서사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작품 창작에 근간이 된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 : 이승편』을 비교·분석하여 서사무가의 수용 및 변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신과 함께』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중에서 <이승편>을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서사무가를 무당·무속과 관련 된 이야기로만 여기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사무가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이야기임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저승편>은 저승의 이야기와 군대 의문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교차시켜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군대 의문사 역시 죽음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저승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기심,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점에서 독자들이 서사무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속적 이야기라는 인식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승편>은 가상공간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을 중심 배경으로 설정하였고, 다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역시 실제로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현대적인 요소와 서사무가 속 신들을 엮어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현실 문제에 대한 자각과 함께 서사무가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서사무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승편>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인격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다시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

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은 주로 이른바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인데, 이것은 정신생활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친숙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소위 원형들이다.<sup>17)</sup>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무의식 층은 명백히 개인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 무의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의 토대 위에 있다. 이 더 깊은 층이 소위 집단적 무의식이다. 나는 집단적이란 표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 아닌 보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개인적 정신과는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같은 내용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sup>18)</sup> 집단적 무의식은 정신의 한 부분으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획득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적 무의식과 구별될 수 있다. 개인적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한때 의식이었던 것이 잊어버리거나 억압되어 의식에서 사라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결코 의식에 머문 적이 없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획득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예외 없이 유전 덕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관념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형의 개념은 정신 속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용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면, 여러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신과 함께』를 창작하고, 그 작품이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신화에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녹아있기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 : 이승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 : 이승편』 사이의 교차점을 찾아냄으로써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7) C. G. 융, 앞의 책, p.106.

18) C. G. 융, 위의 책, pp.105~106.

19) C. G. 융, 위의 책, p.156.

II장에서는 <이승편>의 서사 전개 양상을 텍스트의 분절과 요약, 시퀀스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신과 함께』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만화이므로, 전체적인 내용 전개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에 따라 우선 <이승편>을 최소 사건으로 나눈 후, 다시 시퀀스로 묶어 서사 전개의 흐름을 요약할 것이다. 이 작품은 인물과 요소들의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야기 전개의 중심축을 이룬다. 따라서 여러 등장인물과 요소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여, 그것을 관계도로 나타내고, 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최소 사건들을 앞서 분석한 텍스트 분절에서 차용 및 추가하여,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텍스트의 서사를 바탕으로, 작가가 인식한 사회문제와 서사무가를 결합시킨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점에서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현실 인식에 대해 분석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와 서사무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사, 배경,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사무가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서사무가와 『신과 함께』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사무가 자료인 경기무가 <성주풀이>는 서대석의 자료를,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 <천지왕본풀이>는 현용준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작가가 『신과 함께』 창작 과정에 바탕이 된 자료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사 전개의 핵심인물인 성주신, 조왕신, 측신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 외의 등장인물인 저승차사와 철용신<sup>20)</sup>에 대한 서사무가 자료는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에 용이한 내용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가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서사무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레마스의 이항대립구조를 활용하여 작중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에 따른 주제 도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오늘날 사회문제와의 결합에 따른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서사무가와 <이승편>에 드러나는 공통된 민중의 가치관을 파악함으

20) 천신(天神)과 용신(龍神)의 복합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일반적으로는 천룡신(天龍神)이라는 용어로 불리지만, 지역에 따라서 철용, 철룡, 청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텍스트로 삼고있는 『신과 함께 : 이승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차용하여 ‘철용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로써 연구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에 따라 『신과 함께 : 이승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신화를 모델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가 가능하리라 기대해본다.

## II. 『신과 함께 : 이승편』의 서사 전개 양상

『신과 함께』는 서사무가 요소와 사회문제가 결합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창작된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이승편>은 주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현실에 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와 직결되는 ‘집’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문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인물들 혹은 요소들의 갈등양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사무가나 사회문제,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은, 두 요소의 적절한 융합은 독자들에게 조금은 낯설거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서사무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신과 함께 : 이승편』(이하 <이승편>)은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한 가택신의 고군분투와 철거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과 요소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러므로 우선 서사를 최소 사건으로 분절하여 시퀀스로 묶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울동 소개 시퀀스>

- ① 한울동 101-5번지에는 초등학생이 될 동현이와 김천규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다. (101-5번지)
- ② 구청직원들이 재개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동현이네 집으로 찾아온다. (구청직원의 방문)

### <가택신 현신 시퀀스>

- ③ 사우나에서 나오던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보다 못한 가택신이 현신한다. (현신)
- ④ 가택신은 자신들을 자원봉사자라 소개하고, 성주신은 할아버지의 일을 조왕신은 부엌 정리, 측신은 뒷간 정리를 시작한다. (도움)

###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 시퀀스>

- ⑤ 저승차사가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고, 이를 막으려는 조왕신, 측신과 대립한다. (저승차사의 등장)
- ⑥ 두 저승차사와 두 가택신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성주신이 집에 도착하고, 가택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일직차사는 다음을 기약하며 집을 떠난다. (떠남)
- ⑦ 며칠 후, 저승삼차사가 동현이네 집을 다시 방문한다. (저승차사의 재등장)
- ⑧ 저승차사와 가택신은 대결을 펼쳐 이기는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2대0으로 저승차사들이 승리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택신은 집으로 도망가고, 저승차사들은 그들의 뒤를 쫓는다. (대결)

### <용역업체의 공격 시퀀스>

- ⑨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있고, 동현이는 마당에 나와 울고 있다. (용역업체의 공격)
- ⑩ 마스크를 쓴 아저씨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택신은 자신들이 집을 비워 그렇게 된 것이라 자책한다. (가택신의 자책)
- ⑪ 동현이네 상황을 전해들은 강림은 다음 보고가 있을 때까지 석 달의 시간을 주기로 약속 한다. (약속)
- ⑫ 집을 영망으로 만든 범인이 잡히지만,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범인들과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화가나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에게 경찰은 법이 이런 것을 섭섭해 하지 말라고 한다. (분노)

### <홍역귀 등장 시퀀스>

- ⑬ 한울동을 돌아다니던 차사들은 동현이와 그 뒤를 따르는 홍역귀를 발견하고, 집으로 찾아가 홍역귀를 조심할 것을 알려준다. (차사의 귀뜸)
- ⑭ 홍역귀들은 지체할 것 없이 동현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측신이 혼자 홍역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밥을 짓는데 힘을 다 써버린 조왕신마저 홍역귀에게 잡히고 만다. (홍역귀와의 대결)

- ⑮ 일직차사의 도움으로 홍역귀를 무찌른다. (대결의 승리)
- ⑯ 일직차사가 장독대 위에 발을 올려놓자 철용신이 등장하고, 신은 인간들의 일에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며 자신은 장맛을 지키는 데만 열중할 뿐이라는 뜻을 전한다. (철용신 등장)

**<장학봉 할아버지의 고독사 시퀀스>**

- ⑰ 예방 접종 후 들른 오락실의 문은 잠겨있고, 일주일 후 뉴스에서는 장학봉 할아버지의 사망소식이 전해진다. (할아버지의 죽음)
- ⑱ 장학봉 할아버지는 저승으로 가는 열차에서 동현이에게 비행기를 선물해줄 것을 일직차사에게 부탁한다. (부탁)
- ⑲ 장학봉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일직차사는 성주신과 함께 ‘비행기’가 적힌 오락기를 찾아 동현이에게 선물한다. (할아버지의 선물)

**<가택신과 용역업체 대립 시퀀스>**

- ⑳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랫동네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초대 한 동현이네 집 벽에도 붉은색의 낙서를 해놓는다. (괴롭힘 시작)
- ㉑ 용역업체 직원들이 박스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시비를 걸지만, 성주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날 저녁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세 가택신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
- ㉒ 직원들이 방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부수는데, 성주단지가 깨지면서 성주신도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성주신의 소멸)
- ㉓ 인간들 일에 끼어들어 소멸하게 된 성주신에 대해 탄식하던 철용신은 조왕신의 이야기를 듣고 집이 사라진다면 장독의 존재도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 (깨달음)
- ㉔ 저승에서는 계속되는 가택신의 소멸을 걱정한 대별왕이 가택신 구출 명령을 내린다. (가택신 구출 명령)
- ㉕ 조왕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철용신도 집을 지키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공격하고,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 시작한다. (활동 시작)
- ㉖ 조합장과의 만남 이후 용역업체 직원들은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한울동으

로 출동한다. (출동)

- ㉗ 용역업체 직원들은 동현이네 집을 부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고, 측신과 조왕신은 그들을 막아선다. (대립)
- ㉘ 예기치 못한 상황과 굶은 날씨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들은 잠시 중단하기로 한다. 그 사이 차사들이 동현이네 집을 찾아와 대별왕의 명으로 가택신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차사의 재방문)
- ㉙ 동현이를 놔두고 할아버지와 가택신 모두 저승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측신은 측간을 부숴 소멸하겠다고 협박하고, 조왕신은 자신들을 도와주면 따라가겠다고 제안한다. (가택신의 제안)
- ㉚ 친구들과 헤어진 동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조왕신이 준비한 밥으로 식사를 한다. (마지막 식사)

#### <저승차사와 용역업체 대결 시퀀스>

- ㉛ 그동안 차사들은 조왕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다툼1)
- ㉜ 업체의 우두머리가 월직차사가 쏜 마취총에 맞으면서 그들이 잠시 후퇴한 사이 저승차사들은 동현이네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가택신을 저승으로 데려갈 준비를 한다. (준비)
- ㉝ 월직차사가 명부를 읽는 사이 용역업체 직원이 굴삭기로 집을 부수기 시작하고, 가택신의 위험을 느낀 차사들은 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툼2)
- ㉞ 철용신이 나타나 굴삭기를 막아서고, 차사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사인검으로 굴삭기를 멈추지만, 강력한 사인검의 힘으로 인해 철용신도 소멸한다. (철용신의 소멸)

#### <저승으로 향함 시퀀스>

- ㉟ 영혼이 빠져나온 할아버지는 월직차사가, 정신을 잃은 측신은 일직차사가 데리고 먼저 저승으로 향한다. (저승으로 향함)
- ㊱ 강림은 동현이가 조왕신의 아들인 녹두생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자초지종을 조왕신에게서 듣게 된다. (동현이의 과거)

- ㉟ 조왕신에 의해 동현이는 문왕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된다. (문왕신으로의 회귀)
- ㊱ 강림이 조왕신과 문왕신까지 인도하여 할아버지와 가택신 모두 저승에 도착한다. (저승 도착)
- ㊲ 이승에서는 김천규 할아버지의 장례가 진행되고, 가택신은 저승의 생활에 적응해간다. 저승차사들은 새 명부를 받게 되는데, 명부에는 같은 날 한울동에서 사망하는 여섯 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계속되는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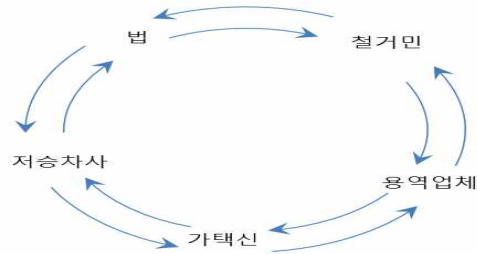
### 1. 미시적 대립과 거시적 대립

위의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중심인물인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승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갈등은 김천규 할아버지와 용역업체의 갈등으로, 이는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한울동 101-5번지의 위기로 가택신이 현신을 하고,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저승차사들이 찾아오면서 ‘집’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전개된다. 결국 ‘집’을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그리고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갈등에 등장인물과 요소를 대입한 결과, 철거민과 법의 대립,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이라는 다섯 가지의 갈등 양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갈등은 각각의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구조를 보이며 철거민에서부터 법에 이르는 큰 하나의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즉 하나의 대립은 또 다른 하나의 대립으로 연결되고, 그 다른 하나의 대립은 또 다시 새로운 대립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미시적으로는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으로 시작되지만, 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거시적으로는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이라는 갈등 관계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철거민에서부터 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등장

인물과 요소들이 하나의 큰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등장인물과 요소들의 연결 관계



<이승편>에는 그 성격이 서로 상반되는 신과 인간, 저승과 이승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됐으며, 상반된 성격을 중심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하여 소외되고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통해 주제로 향해 가고 있다.

## 1) 미시적 대립

### (1) 철거민과 법의 대립

철거민과 법의 대립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여주는 갈등양상이다. 다만 법을 그 자체로 드러내기 보다는 정해진 틀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하는 구청직원과 경찰을 등장시켜 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빨리 철거민들을 재개발 예정지에서 떠나도록 해야 하는 구청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법이 좋아졌다는 명목 하에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몰 뿐이다. 그들에게 철거민들이 한울동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단지 철거민들을 신속한 재개발 진행을 위해 집을 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긴다.

- ② 구청직원들이 재개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동현이네 집으로 찾아온다. (구청직원의 방문)

구청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재개발에 대해 설명하며 동의서 작성을 부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설득한다. 그럼에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애착 때문이다. 남들 눈에는 허름하고, 오래 된 낡은 집에 불과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상경해 생활을 시작한 김천규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101-5 번지는 상경 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으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손자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김천규 할아버지의 인생과 함께 해 온 곳으로써 소중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물론 구청직원의 말처럼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가 발전하면 지금보다 살기에 편리해 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한 비용도 쉽게 구하기 힘든 큰돈이다.

⑫ 집을 영망으로 만든 범인이 잡히지만,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범인들과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화가나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에게 경찰은 법이 이런 것을 섭섭해 하지 말라고 한다. (분노)

+ 김천규 할아버지는 오락실에 들러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장학봉 할아버지는 신고를 해도 잡지 않는다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한탄한다. (한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들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노에 찬 상태로 발걸음을 돌리는 김천규 할아버지에게 법이 그러한 것이므로 섭섭해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경찰의 태도는 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오락실 유리를 깨고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달라는 장학봉 할아버지의 신고 역시 용역업체의 괴롭힘임을 추측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철거민과 법의 대립을 잘 보여준다.



- + 장학봉 할아버지를 찾아간 구청 직원들은 보상금이 나오니 빚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사 가기를 권유하고, 할아버지는 보상금은 필요 없다며 나가기를 거부한다. (거부)

오락실을 차리면서 든 빚도 있고, 한울동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는 장학봉 할아버지에게 구청직원은 보상금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구청직원들의 제안은 거기까지다. 가령 장학봉 할아버지가 집을 비우기로 하고, 일정의 보상금으로 빚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한동안 할아버지가 지내야 할 곳을 마련할 방법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은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청직원들은 그저 법을 내세워 철거민들을 빨리 떠나도록 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철거민과 법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최소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살펴볼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은 철거민과 법의 대립의 하위 내용이 될 것이다. 동의서를 받으려 한울동을 돌아다닌 구청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버티려는 철거민들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으므로 그 주체가 용역업체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철거민 역시 상대방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소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집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가택신으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은 철거민과 법의 대립에서 ‘법’의 주체가 ‘용역업체’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업체는 철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무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기에 비교적 제한이 없는 존재로, 철거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는 주체다.

- ㉑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있고, 동현이는 마당에 나와 울고 있다. (용역업체의 공격)
- ㉒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랫동네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초대한

동현이네 집 벽에도 붉은색의 낙서를 해놓는다. (괴롭힘 시작)

구청 직원들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는 용역업체의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용역업체의 손이 닿은 곳은 비단 동현이네 집만이 아니다. 한울동은 용역업체에 의해 사람이 살지 않을 것만 같은 흉흉한 동네로 변해간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며 나가지 않는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철거민들을 괴롭힌다.

+ 끝까지 맞서 싸우는 철거민들을 제지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마주한다. (대립)

위의 최소 사건은 앞에서 제시한 최소 사건 이외에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과 그들을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용역업체는 결국 소수 대 소수의 대립에서 다수 대 다수의 대립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음을 드러낸다.

### (3)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처럼 힘없고,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약한 존재들은 무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강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는 허름하고 낡은 집을 아끼고, 자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한울동 101-5번지의 집주인이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집안 곳곳에는 집을 지키는 가택신이 존재한다. 재개발은 가택신의 소멸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들에게도 집을 부수려는 용역업체는 대립을 형성해야 하는 존재다.

몸이 아파 앓아누운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집과 동현이를 지키기 위해 가택신이 현신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때부터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이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에서 가택신으로 전이되면서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으로 전환된다.

- ▣ 용역업체 직원들이 박스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시비를 걸지만, 성주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날 저녁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세 가택신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
- ▣ 직원들이 방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부수는데, 성주단지가 깨지면서 성주신도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성주신의 소멸)
- ▣ 인간들 일에 끼어들어 소멸하게 된 성주신에 대해 탄식하던 철용신은 조왕신의 이야기를 듣고 집이 사라진다면 장독의 존재도 무의미함을 깨달게 된다. (깨달음)
- ▣ 조왕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철용신도 집을 지키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공격하고,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 시작한다. (활동 시작)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은 1·2차 대립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위 4개의 텍스트 분절은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첫 대립 양상을 나타낸다. 1차 대립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던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성주단지가 깨지면서 성주신이 소멸하게 되는데, 조왕신과 측신을 이끌던 성주신의 소멸이 두 가택신에게는 큰 위기로 작용하게 된다. 더불어 그 동안 집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철용신이 조왕신에 의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집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된다.

- ▣ 용역업체 직원들은 동현이네 집을 부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고, 측신과 조왕신은 그들을 막아선다. (대립)
- ▣ 그동안 차사들은 조왕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다툼1)
- ▣ 업체의 우두머리가 월직차사가 쓴 마취총에 맞으면서 그들이 잠시 후퇴한 사이 저승차사들은 동현이네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가택신을 저승으로 데려갈 준비를 한다. (준비)
- ▣ 월직차사가 명부를 읽는 사이 용역업체 직원이 굴삭기로 집을 부수기 시작하고, 가택신의 위험을 느낀 차사들은 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툼2)
- ▣ 철용신이 나타나 굴삭기를 막아서고, 차사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사인검으로 굴삭기를 멈추지만, 강력한 사인검의 힘으로 인해 철용신도 소멸한다. (철용신의 소멸)

위 5개의 텍스트 분절은 2차 대립에 해당한다.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대표에게 한울동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큰 걸림돌이다. 법으로 결정된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그들은 무력을 행사하며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실질적인 행동의 주체는 용역업체다. 여기서 두 세력은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계약에 의한 관계인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종의 거래에 의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2차 대립에서는 용역업체와 대립을 형성하던 가택신이 저승차사로 이양된다는 변화를 보인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가택신을 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집의 붕괴는 곧 주거자와 가택신의 소실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즉 본질적으로는 집을 사이에 둔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이지만, 가택신의 소멸이라는 위기는 저승차사와 용역업체의 대립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 2) 거시적 대립

### (1)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

가택신과 저승차사는 모두 신적인 존재다. 다만 가택신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집과 그 곳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인간들이 그에 대한 믿음으로 가택신을 섬기고 기원을 드리는 반면, 저승차사는 죽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의 신이다. 이때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은 삶과 죽음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가택신과 저승차사는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작품에서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위기는 발단 부분에서 비교적 일찍 등장하는데, 이 위기는 가택신이 현신을 통해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요인이 된다. 집의 철거, 집주인의 죽음은 가택신에게도 소멸의 위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저승차사와의 대결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3년 전 찾아온 갑작스런 동현이 아빠의 죽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동현이를 맡겨두고 돌아오지 않는 엄마, 1년 전 할머니의 죽음에 이르는 계속되는 가혹한 상황 설정은 발단 부분에서 등장한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위기는 가택신이 인간들 앞에 모습을 보이고, 가택신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이다.

- ⑤ 저승차사가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고, 이를 막으려는 조왕신, 측신과 대립한다. (저승차사의 등장)
- ⑥ 두 저승차사와 두 가택신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성주신이 집에 도착하고, 가택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일직차사는 다음을 기약하며 집을 떠난다. (떠남)
- ⑦ 며칠 후, 저승삼차사가 동현이네 집을 다시 방문한다. (저승차사의 재등장)
- ⑧ 저승차사와 가택신은 대결을 펼쳐 이기는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2대0으로 저승차사들이 승리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택신은 집으로 도망가고, 저승차사들은 그들의 뒤를 쫓는다. (대결)

가택신과 용역업체의 대립처럼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 역시 1·2차 대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최소사건 ⑤~⑧은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1차 대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갈등이다. 명부에 적힌 대로 저승차사들이 망자인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집의 철거라는 상황에서 가택신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은 어느 때보다 쉽게 허용해 주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가택신은 더욱더 치열하게 저승차사들과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피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 ⌘ 예기치 못한 상황과 굶은 날씨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들은 잠시 중단하기로 한다. 그 사이 차사들이 동현이네 집을 찾아와 대별왕의 명으로 가택신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차사의 재방문)
- ⌘ 동현이를 낚두고 할아버지와 가택신 모두 저승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측신은 측간을 부숴 소멸하겠다고 협박하고, 조왕신은 자신들을 도와주면 따라가겠다고 제안한다. (가택신의 제안)

위의 최소사건은 2차 대립으로, 가택신 구출을 둘러싼 저승차사와 가택신의 갈등

을 보여준다. 본래 가택신과 저승차사는 그 신적인 성질이 서로 상반된다. 가택신은 집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존재이며, 저승차사들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편>에서 저승의 왕인 대별왕이 이승의 가택신 구출을 명령하고, 저승차사들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승으로 찾아온다. 본래부터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 신들이므로, 가택신은 저승의 왕에 의해 구출 되어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결국 측신은 혼자 남게 될 동현이를 걱정하며 스스로 소멸하겠다고 저승차사들을 협박하며 극대화된 갈등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사무가에서 드러나는 신들의 상반된 성격을 <이승편>에서도 큰 변화 없이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서사무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승편>의 주제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

철거민과 법의 대립, 철거민과 용역업체의 대립, 용역업체와 가택신의 대립,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립까지 구성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저승차사와 법의 대립이 형성된다. 이를 다시 한 번 환기하면, 죽음과 법의 대립으로 바꿀 수 있고, 이는 다시 질서와 무질서로 치환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의에서 언급하는 ‘법’은 현실 세계에서의 법이므로, 이는 이승의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법’을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은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 규범이다. 그러나 <이승편>에서는 법을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이 용역업체로 그 세력이 이전 및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보편적인 ‘법’은 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항들이지만, <이승편>에서의 법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의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음은 사후세계, 즉 저승을 상징한다. 저승은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평등성이 지배하는 곳이자, 질서를 갖춘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죽음은 곧 이승과 저승

으로 나타나며, 이때 이승은 무질서로, 저승은 질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승:저승=무질서:질서’의 등식으로 성립된다.

제주도 무가 <천지왕 본풀이<sup>21)</sup>>가 ‘이승:저승=무질서:질서’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천지왕 본풀이>에서 이승을 다스리게 된 소별왕은 대별왕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지만 이후에는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고, 저승은 대별왕이 제대로 된 규칙을 세운 덕분에 질서를 확립한다.

<이승편>에 가택신의 소멸을 걱정한 대별왕이 염라대왕에게 가택신 구출을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승을 다스리는 소별왕이 아닌 대별왕이 가택신을 구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 번 이승의 무질서를 드러낸다.

측신 : 누가 시켰는데?

일직차사 : 대별왕령이오.

측신: 오지랴도 넓으시구만? 저승왕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강림: 이승왕이 당신들을 버렸으니까... 당신들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요.<sup>22)</sup>

저승차사들이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승으로 왔다는 말에 측신은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이내 곧 강림도령의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만다. 이승을 다스려야 할 소별왕은 가택신이 사라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승의 대별왕이 가택신의 소멸을 걱정하며 그들을 구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승편>에 <천지왕본풀이>의 일부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도

21) 천지왕(옥황상제)와 총맹부인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큰 아들을 대별, 작은 아들을 소별이라 하였다. 천지왕은 총맹부인에게 증표로 박씨를 주고 천상으로 떠나고, 형제는 자라 15세가 된다. 서당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와서 아버지를 찾아 주기를 요청한다. 부인은 형제의 아버지가 옥황상제 천지왕임을 밝히며, 박씨 두 알을 형제에게 건넨다. 형제는 박씨를 하나씩 심었는데, 박씨에서 자란 넝쿨이 하늘로 뻗어가기 시작하고, 형제는 그 줄을 타고 올라가 아버지를 만난다. 천지왕은 대별왕은 이승을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도록 했으나, 욕심이 많은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했고, 결국 형제는 대결을 펼쳐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기로 한다. 소별왕은 수수께끼에서 패하고, 꽃을 심어 먼저 키우는 이가 이승을 차지하기로 했지만, 번성한 대별왕의 꽃을 소별왕이 자신의 것과 바꾸면서 이승을 다스리게 되고, 저승은 대별왕이 다스리게 된다. 이승은 해와 달이 두 개가 떠 있고, 짐승들도 말을 하는 등 혼란의 상황에 있었다. 이에 소별왕은 형 대별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대별왕은 이승으로 가 혼란을 정리한다. 그러나 형의 조언을 듣지 않은 소별왕으로 인해 인간세상은 살인과 도둑이 생겨나게 되었고, 저승은 대별왕의 노력으로 공정한 세계가 되었다.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pp.14~23요약.

22) 주호민, 『신과 함께 : 이승편』하, 애니북스, pp.145~146.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속이고, 이승의 왕이 되고 나서도 형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대별왕은 이승의 일도 저승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돕고, 혼란으로 얼룩진 저승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소별왕과 대별왕이 주는 캐릭터의 성격을 십분 활용하여 가택신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천지왕 본풀이>를 차용하여 이승과 저승의 상반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이승의 무질서함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사회적 소외계층의 궁핍과 무관심

지금까지 <이승편>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서사 전개를 살펴보았다. 그 갈등은 대립구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작가는 그 대립적인 갈등 양상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서사는 가택신과 저승차사 그리고 용역업체가 등장하여 철거민과 철거 예정인 집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철거민들의 모습을 통해 모순된 사회와 이기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작가가 <이승편>을 통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철거민의 궁핍과 소외

김천규 할아버지는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판 돈으로 동현이와의 생활을 이어간다. 여느 날과 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모은 고물들을 싣고 고물상에 도착하지만, 고물상 주인은 더 이상 소형 가전제품을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가전제품들을 무료로 수거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고물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 가져가서 다시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고?”라는 김천규 할아버지의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약자들의 노력을 정작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단 김천규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다. 아랫동네에서 분식집을 하는 부부는 용역업체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한울동을 떠나기로 하지만, 그와 함께 생업의 터전까지 잃게 되면서 생계를 걱정한다. 또한 흥흥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한울동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는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든 곳에서 고추를 팔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철거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재개발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철거민들의 궁핍한 생활과 소외된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그들을 돕고, 지키는 존재는 가택신이다. 현신을 통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일을 돕는다. 이는 가택신의 등장과 가택신이 집과 그 집의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 2)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작가는 사회적 부조리나 모순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거시적으로는 불합리한 사회문제에 중점을 두고, 미시적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이웃, 가족 사이의 단절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사회와 이웃, 가족들이 보여주는 단절이 오늘날 전체적인 사회의 혼탁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학봉 할아버지의 죽음을 들 수 있다.

장학봉 할아버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사망한지 일주일도 지나서야 이웃에게 발견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저승차사인 자신이 무섭지 않냐는 월직차사의 물음에 장학봉 할아버지는 “죽는 건 무섭지 않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있을까 봐… 얼마나 치우기 싫겠어… 그게 무서워요.”라고 대답한다. 자식들이 있지만 홀로 생활하는 곳에서, 죽은 자신이 빠른 시일 내에 발견되지 못할 것을 장학봉 할아버지 본인은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단절은 장학봉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과 김천규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나타난다.

김천규 할아버지: 어떻게 된거요?

장학봉 할아버지 아들: 며칠 전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사흘, 나흘 지나도 연락이 안 되시고… 문은 잠겨있고… 동네가 그렇게 어수선한지도 처음 알았네요. 철거다 뭐다… 그렇게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김천규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장학봉 할아버지 아들: 그래도 그런 상황이셨으면… 말씀이나 해 주시지, 에휴… 그럼 도와드렸을 텐데…

김천규 할아버지: 말을 해야 아는 거요?<sup>23)</sup>

위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봉 할아버지의 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연락을 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함께 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한울동의 상황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아들의 말을 통해 장학봉 할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락이 얼마나 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 장학봉 할아버지의 쓸쓸한 죽음과 위의 대화의 내용은 오늘날 소통이 단절된 가정의 모습과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웃들 사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장학봉 할아버지의 죽음을 비롯해 작품 곳곳에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김천규 할아버지가 폐지로 주운 신문에도 고독사에 대한 기사 제목이 클로즈업 돼있으며, 망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차사들을 따라 나서면서도 죽은 자신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자, 이웃들이 발견해 줄 것이라 대답하는 차사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비롯하여, 그 죽음과 관련된 오늘날 사회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는 측면으로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이승편>의 서사전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승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회문제에 휘둘리면서도 쉽사리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주며,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재개발,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활

---

23) 주호민, 위의 책, p.210.

용하였고, 무엇보다도 결말 부분에서 독자들이 용산 사태로 인한 여섯 명의 희생자를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그렇다면, 작가는 오늘날 삶과 죽음의 모습을 통한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 왜 서사무가를 차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신화를 소재로 작품 창작을 기획했으며, ‘가택신에게 가장 큰 시련을 무엇일까’란 질문은 곧 집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를 자연스레 재개발 문제로 풀어내게 되었다<sup>24)</sup>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여러 서사무가 속 인물들 중에서도 <이승편>에 성주신과 조왕신, 측신을 중심인물로 설정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작품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현실에서 드러나는 가택신앙의 위기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세 인물을 중심인물로 설정했다고 보았다. 가택신 중에서도 성주신, 조왕신, 측신을 부부신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중요한 공간은 대청, 안방, 부엌, 측간이다. 여기서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대청은 곡물의 저장창고라면, 안방은 살림살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자의 곡물에 대한 승인을 얻는 공간이고, 부엌은 주부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들 곡식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다. 다시 조리된 음식은 안방에서 소모되고, 그 음식과 관계된 배설은 측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배설물은 울타리 밖의 토지에서 경작물의 자양분이 되어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 곡식은 다시 울타리 안으로 유입되어 대청에 보관된다. 여기서 음식물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보면 대청→안방→부엌→안방→측간→경작지→대청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부신은 이들 순환 구조 속에서 부부간의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을 토대로 배치되어 있고, 가정의 권력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가택신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각 지역에서 성주신, 조왕신, 측신을 섬기는 행위로 이어지며, 그러한 행위자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통의 와해로 인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한 현실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직까지 가택신앙으로서 명맥을

24)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작가 인터뷰 신화라는 뼈대에 만화라는 반짝이는 살을 입히다’, <북DB>, 2012년 11월 23일.

[http://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43921](http://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43921)

25) 표인주, 앞의 논문, pp.175~176.

유지하고 있는 세 가택신을 주된 인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주신, 조왕신, 측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가택신으로서 <이승편>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편>에서 동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할아버지와 생활은 부모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이를 성주신과 조왕신이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승편>에서는 다른 가택신보다도 측신이 동현이와 함께 하는 경우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성주신과 조왕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동현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 때문인지 <이승편>에서는 측신이 동현이와 함께 하는 에피소드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작가는 서사무가에서도 중요한 신으로 인식되는 성주신과 조왕신 그리고 측신이라는 인물을 <이승편>으로 끌어와 등장시켰으며, 아버지로 대표되는 성주신과 어머니로 대표되는 조왕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사무가에 서 측신으로 좌정하기 이전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과 처첩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지만, <이승편>에서는 동현이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돕는 '누나'의 역할을 담당하며, 성주신과 조왕신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Ⅲ. 작가의 현실 인식과 서사무가의 변용

#### 1. '집' 중심의 공간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면 작가의 현실 인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작품의 주제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이승편>은 작가가 사회문제를 중점적으로 내세워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서사무가를 결합시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가 오늘날의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지 파악한 후에야 작품 속 작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승편>은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Ⅲ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작가의 현실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사무가 활용 양상을 파악하여 실제 작품 창작에 바탕이 된 서사무가 작품과 <이승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

<이승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소시민들의 삶의 양상에 관한 것이다. 이 작품에 제시된 소시민의 삶은 한울동의 재개발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한울동 101-5번지의 철거를 중심사건으로 전개된다.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놓지 못하고, 그 곳을 떠나지 못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용역업체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겪는 소외된 삶의 양상이 제시되고 있다. ‘집’의 문제를 통해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그것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의 삶이 대변<sup>26)</sup>되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질서의 유지와 정의실현과 같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이 확정된 동네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받는 모습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회적 모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한울동을 떠나고 싶어도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지낼 집을 구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재개발 동의를 받기 위해 집을 찾은 구청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니 세상이 좋아졌다고 설명할 뿐이다. 과거에는 두 혜택 중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반해 지금은 두 혜택 모두를 신청할 수 있으니 법의 개정이 철거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은 맞다. 다만 말 그대로 기회가 늘어났을 뿐, 그 혜택이 모든 철거민들에게 고루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청직원들은 개정된 법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생각지도 않고,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소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 2) 대립적 삶의 양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승자와 패자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양가적인 모습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작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삶의 양태를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유형화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위치에서 집을 지키고자 하는 철거민과 가택신을 오늘날 소시민의 대표로, 집과 그것을 지키려는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과 용역업체는 사회적 모순

---

26) 이춘우, 「조세희 소설 연구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9.

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특히 작가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서사무가와 결부시켰다. 이러한 작가의 현실인식 방법은 오늘날 급속한 변화와 현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그에 따른 계층의 분리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체들 간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때 주체 간의 갈등 양상은 강자와 약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관계가 뒤섞여 나타난다. 이 갈등 관계는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며 오늘날 사회문제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약자로 대표되는 철거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다. 법은커녕 가족과 이웃들조차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역을 잃지 않기 위한 약자들의 생존을 건 험난하고 외로운 싸움이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는 곧 '집 없음'으로 나타난다. 집은 정주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가 그 사회 속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여 안정된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sup>27)</sup> 재개발로 인해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인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철거민들은 그 이전보다 한층 더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 3)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인간사회의 해체

지금 우리가 지내는 공간만 보더라도 오늘날 집의 대부분은 획일적이며, 일률적인 외형을 갖춘, 전통적인 주거공간의 모습이 와해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주거공간의 해체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어, 집을 하나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의 공간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재개발의 명목 하에 건축될 아파트는 사용가치로서 보다는 교환가치로서의 의미가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용가치를 축출함으로써 자본의 호용성이 삶을 통제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되어버렸음<sup>28)</sup>을 나타낸다.

27) 이춘우, 위의 논문, p.19.

28) 오세영, 「사랑의 입법과 사법」, 『세계의 문학』봄호, 민음사, 1989, 이춘우, 위의 논문, p.20에서

이러한 공간의 단절은 자연스레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작품 말미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성호가 부모님과 함께 찾은 작은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김천규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전개는 서사에 있어 반전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 해체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 2. 서사무가의 변용

지금까지 살펴 본 서사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의 원천이 된 서사무가<sup>29)</sup>와 <이승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서사무가의 어떤 부분이 차용 및 변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재개발 예정지라는 환경과 맞닥뜨린 철거민들의 생존방식을 서사무가 요소들과 연결시켜 효과적인 주제 전달과 함께 서사무가의 활용 가치를 보여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재개발에 대처하는 철거민들의 행동과 그들을 돕기 위한 가택신의 등장은 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서사무가와 <이승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주제 형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가택신의 위기 설정

작가가 밝히고 있듯이, 가택신에게 위기란 집이 사라지는 것이다. 집이 생겨남과 동시에 탄생하는 가택신에게 집은 곧 자신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승편>은 경기무가인 <성주풀이>와 제주도 무가인 <문전본풀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무가의 내용이 크게 수용되지 않

---

재인용.

29) 인터뷰에서 작품 창작에 바탕이 된 서사무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서화숙의 만남] 웹툰계의 신성 <신과 함께> 주호민', 한국일보, 2012년 7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2275945>



았다. 우선 작품이 전개되는 배경이 오늘날 재개발 예정지라는 점, 가택신이 주로 ‘신’의 모습보다 사람의 모습과 복장으로 등장한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도 작가가 작품 창작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성주신과 지신, 조왕신과 측신이 신이 되는 과정을 담은 ‘좌정담’이라는 점에서 서사무가의 내용을 차용하여 현대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작품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리라 본다. 그래서 작가가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집안의 여러 장소신들을 <이승편>에 차용하여 오늘날에 와서 변화된 그들의 삶을 현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1) 재개발에 따른 가택신의 소멸과 위기

가택신은 집안을 하나의 소우주로 봤을 때, 집안 곳곳에 좌정해 있는 신을 말한다. 가신은 자신들이 속한 공간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능 또한 정해져 있다.<sup>30)</sup>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안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집안의 여성들은 가택신을 모시고, 그들에게 기원을 해 왔다.

가신 또한 무속의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이중성을 지니는 신령이다. 무속의 신령들은 선신과 악신의 양면성을 지니는데, 즉 천신이라도 정성을 들여 섬기지 않으면, 인간에게 액과 화를 주며, 잡신이라도 잘 섬기면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개념이다. 가신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주는 신이다.<sup>31)</sup> 그러므로 가택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그들을 신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가택신앙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가택신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약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것은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 즉 건축 공간의 변화와 종교적인 의식의 변화를 통해 가택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 점차 약

30) 최진아, 「무속에 나타난 가정신-가정신의 직능을 중심으로」, 김명자 외,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p.246.

31) 최진아, 위의 논문, 김명자 외, 위의 책, p.249.

화 된데서 비롯된 것<sup>32)</sup>으로 볼 수 있다. 의례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아파트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서 의례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의례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곧 의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변모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주거 공간의 변화로 인한 가택신에 대한 의례가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승편>은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더불어 집이라는 공간의 변화가 가택신에게도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가택신앙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승편>에서 동현이의 과거는 문왕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은 대문이 사라져 집의 출입구를 지키는 문왕신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 변해가는 오늘날 주거공간의 단절과 가택신의 위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승의 가택신이 점차 소멸하는 것을 걱정한 대별왕의 명령으로 저승차사들이 가택신을 구하기 위해 이승을 찾아가는 내용이 등장한다. 가택신을 구하기 위해 잠시 차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저승차사들을 대신하여 단물차사와 탄석차사가 등장한다. 단물차사는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탄석차사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담당하는 저승차사로, 작품 속에서 이들은 차사직을 은퇴한 것으로 표현된다. 과거에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집이나 마을에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던 우물이 오늘날에 와서는 아예 사라지거나 그 형태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우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작품 속에서는 단물차사와 탄석차사의 은퇴라는 설정으로 주거형태와 공간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물차사와 탄석차사가 저승차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고, 오늘날 주거공간에 대해 무지했던 단물차사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달리 많이 변해 버린 공간에 대한 내용을 풍자적으로 나타낸다.

아래 <그림2>에서 단물차사가 아파트를 ‘한의원 약서랍’에 비유하며 일률적인 오늘날 주거공간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주거공간의 변화 양상을 알지 못한 단물차사가 문왕신과 맞설 준비를 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

32) 표인주, 앞의 논문, p.164.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과거의 전통주택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묘사한다.

<그림 2> 오늘날의 주거 공간1

<그림 3> 오늘날의 주거 공간2



<그림 3>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구를 통과한 것이 어리둥절한 단물차사에게 탄석차사가 문왕신의 소멸에 대해 설명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인심이 메마르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 결과, 문을 잠그게 된 것을 문왕신 소멸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 4>는 문왕신이 소멸한 이유를 현대적 주거공간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삼중으로 잠겨있는 오늘날 출입문의 형태를 보여주며 <그림3>에서 설명한 메마른 인심과 불신이 팽배한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여러 개의 출입문은 메마른 인심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단절을 비롯한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5>에서는 여전히 가택신에게 맞설 자세를 취하는 단물차사의 행동이 답답했던 탄석차사가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들이 오늘날에는 부재함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택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오늘날의 주거공간에는 편

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맞춰 변화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가택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오늘날의 주거 공간3



<그림 5> 오늘날의 주거 공간4



(2)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의 존재방식

주거공간의 소멸 혹은 변화는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거자를 비롯한 가택신에게도 생사를 다투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집이라는 공간은 개인 혹은 혈연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영역을 확대하는 기준의 공간이 된다. 표인주(2000)는 안방을 혈연적, 지연적, 가족적인 공간으로서 삼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안방은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한 혈연공동체의 장이면서 가정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지니고서 이웃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연공동체의 장이 되기도 한다. 안방이 혈연공동체의 장이라 함은 제사권을 가진 자가 거주하기 때문이고, 지연공동체의 장이라 함은 가족을 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자가 거주하기 때문이다.<sup>33)</sup>

인간은 삶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주로 의존의 대상

33) 표인주, 위의 논문, p.166.

은 영험하고 신성성을 지닌 종교적인 대상이다. 종교적인 대상 즉, 전지전능한 신격에게 의지하고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제사이다. 인간은 제의의 과정 속에서 공간을 인식하고 우주를 제의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은 생활 영역을 근거로 우주를 소우주와 대우주로 인식하고, 소우주가 혈연적인 가족공동체가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가정과 혈연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마을을 대우주로 인식한다.<sup>34)</sup>

<그림 6>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성주단지



<이승편>에는 돌아가신 동현이 할머니가 집안에 성주단지를 모시고, 기원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동현 할머니가 기원을 하는 목적은 할아버지의 건강과 동현의 엄마의 귀가 그리고 가족 모두의 평안에 관한 것으로 삶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할머니의 의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할머니의 기원 행위는 할머니의 죽음 이후 성주신이 동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용도로 성주단지에 담겨있던 돈을 사용했음이 설명되면서, 가택신과 그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인간의 기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안전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철거민들은 실질적으

34) 표인주, 위의 논문, p.167.

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종교적인 대상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 인식한다. 동현이 할머니는 그 이전부터 성주단지에 기원을 해왔고, 그 기원의 결과는 가택신이 위기에 처한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를 보살피기 위해 현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시 · 공간 배경의 활용

소설을 형성하는 기본요소 중 하나인 배경은 시간적 · 공간적 배경으로 작품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 혹은 시간을 말한다. 이전의 배경은 단순히 ‘거기있다’라는 그 자체만의 목적을 위해서 쓰였을 뿐, 인물이 배경에 의해 좌우되거나, 배경이 인물 속으로 내면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개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설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설은 사회 내에서의 경험과 환경이 어떻게 인물을 변화시키고, 인물은 어떻게 이에 반응하는가에 관해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오면 배경은 단지 하나의 장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환경으로서 국가 · 기후 · 날씨 · 종교 · 정치 · 도덕 등 인간 생활에 걸친 모든 양상을 포괄하는 통합개념이 된다. 이처럼 배경은 단지 행위가 벌어지기 위한 마당으로만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sup>35)</sup>

<이승편>에서는 각각의 직능이 주어진 가택신을 등장시킴으로써 자연스레 가택신이 좌정한 집안의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들이 좌정한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적 배경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공간적 배경만을 앞세우지는 않았다. 이승의 시간과 저승의 시간이 공존한다는 설정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생사가 공존하며,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승편>에서의 시 · 공간배경 분석은 중요하다.

35) 윤명구, 이견청, 김재홍, 감태준 공저, 『문학개론』, 현대문학, 2007, pp.187~188.

따라서 서사무가와 <이승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시·공간 배경을 파악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시·공간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경기무가 <성주풀이>와 제주도 무가 <문전본풀이> 그리고 <차사본풀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기무가 <성주풀이>는 성주신과 지신에 대한 좌정담이며, 제주도 무가 <문전본풀이>는 조왕신과 축신 그리고 문전신 등 여러 가택신에 대한 좌정담으로 가택신과 관련된 서사무가이다.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의 우두머리인 강림이 저승차사가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차사들에 대한 서사무가이다. 경기무가인 <성주풀이>는 이성녀 구연의 ‘성주본가’(1937)<sup>36)</sup>, 심복순 구연의 ‘성주풀이’(1978)<sup>37)</sup>, 송기철 구연의 ‘성주굿’(1982)<sup>38)</sup>/(1990)<sup>39)</sup> 등이 채록되었다.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몇몇 단락에서 이본 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는 다른 서사무가에 비해서 성주무가가 동일한 무가권에서 전승되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연구가 진행된 서대석의 채록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적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자한다.

- ① 천하궁에서는 난데없는 동풍으로 무너진 성주를 이룩하기 위해 황우양을 잡아오도록 차사를 보낸다.
- ② 부인은 천하궁으로 떠나는 황우양에게 가는 길에 아이든 어른이든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③ 황우양은 소진량의 말에 속아 옷을 바꿔 입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 ④ 황산뜰로 온 소진량은 남편이 돌아왔다며 옷을 보이며 문 열기를 명하지만, 부인이 속지 않자 도술로 문을 열어 완력으로 부인을 핍박한다.
- ⑤ 부인은 시부모님 제사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속옷을 찢어 황우양에게 남기는 혈서를 적어 주춧돌 밑에 남긴다.

36)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pp.110~113.

37) 김태근,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pp.185~209.

38)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p.293~330.

39) 서대석, 박경신, 『안성무가』, 집문당, 1990, pp.273~310.

40) 홍태한, 「무가에 나타난 성주신의 모습」, 김명자 외, 앞의 책, p.294.

- ⑥ 황우양은 간밤에 끈 흉몽이 마음에 걸려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고, 집 안에 재난이 닥쳤음을 알게 되자, 순식간에 천하궁을 짓고 급히 집으로 향한다.
- ⑦ 황우양은 주춧돌 아래에 부인이 남겨 둔 혈서를 발견하고 소진뜰에 도착하여 부인에게 몽사를 넣고, 우물가에서 부인과 황우양이 상봉한다.
- ⑧ 새로 변신한 황우양은 소진랑을 징치해 돌함에 가둔다.
- ⑨ 황우양과 부인은 사후에 성주와 지신이 되기로 하고, 먼 훗날 그들은 성주신과 지신이 된다.

<문전본풀이>는 문전신을 비롯하여, 정주목의 주목신, 부역의 조왕신, 변소의 측신, 오방토신들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다만 이들 신 가운데 문전신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문전본풀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sup>41)</sup> 문전본풀이는 지금까지 8편이 채록되었다. 아카마츠/아키바가 채록한 박봉춘본, 진성기가 채록한 이춘아본, 신명옥본, 박남하본,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본, 문무병이 채록한 김연희본,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본<sup>42)</sup>이다. 각 편들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인물의 이름이나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통적 서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락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 ① 남선비는 무곡장사를 위해 배를 타고 떠나고, 그가 탄 배는 흐르고 흘러 오동 고을에 도착한다.
- ②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장기를 벌이고, 며칠 만에 남선비는 배를 팔고, 무곡 살 돈을 모두 빼앗기고, 눈까지 멀게 된다.
- ③ 아들들이 만들어준 배를 타고 떠난 여산부인은 오동고을에 도착하고, 여기저기 남편을 찾으러 다닌다.
- ④ 여산부인은 지나가는 행인인 척 하루 저녁 재워주기를 부탁하고, 부인이 지은 쌀밥을 먹은 남선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자, 여산부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41)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267.

4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127.



- ⑤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여산부인은 주천강 연못으로 향하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물속으로 밀어 넣어 죽인다.
- ⑥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큰 부인인 척 집으로 돌아가 남선비에게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죽이고 왔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두 사람은 함께 남선고을로 향한다.
- ⑦ 일곱 형제 중 막내인 녹디성인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린다.
- ⑧ 아들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게 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형제를 없앨 계략을 꾸민다.
- ⑨ 노일제대귀의 말에 속은 남선비는 일곱 형제의 간을 내기 위해 칼을 갈고, 이를 알게 된 녹디성인이 의견을 제시한다.
- ⑩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간을 얻을 묘책을 제시하고, 녹디성인은 새끼 돼지를 잡아 간을 내어 돌아간다.
- ⑪ 녹디성인은 간을 먹는 척하며, 입에 핏물만 묻히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거짓 칭병을 확인하고 자리 밑에 숨겨 놓은 간 여섯 개를 들고 높은 곳에 올라 외친다.
- ⑫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형들이 달려들고, 당황한 남선비는 겁결에 밖으로 내달다가 나무 막대기에 목이 걸려 죽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밖으로 갈 수 없어 변소로 도망쳐 머리카락으로 목 매어 죽어 측신이 된다.
- ⑬ 일곱 형제는 죽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복수하고, 서천꽃밭에 올라 꽃을 얻어 주천강 연못으로 향한다.
- ⑭ 형제는 연못 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뼈를 발견하고, 모아 놓은 뼈 위에 환생꽃을 놓아, 금봉채로 후려치자 어머니가 살아난다.
- ⑮ 사시사철 물 속에서만 살았던 어머니를 위해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할망으로 앉아 얻어먹기 마련하라며 조왕할망이 되어 들어서게 하고, 형제는 각각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이 된다.

<차사본풀이>는 <이승편>에 등장하는 저승차사와 그 배경이 되는 저승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 ① 동관음절의 대사중이 소사중에게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정명이 15세이니, 불공을 드려 연명시켜 주라”고 한다.
- ② 3년의 불공을 마치자, 고향이 그리워진 삼형제는 부모님을 뵙고 오기로 하고, 소사중은 “광양 땅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명주와 비단을 짊어 지워 보낸다.
- ③ 광양 땅까지 오게 된 삼 형제는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고, 과양생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가기로 한다.
- ④ 삼형제가 가져온 명주와 비단을 보자 욕심이 난 과양생의 처는 삼형제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참기름을 끓여 귀에 부어 삼 형제를 죽이고 주천강 연못에 수장한다.
- ⑤ 동정을 살피러 간 과양생의 처가 연못에 뜬 꽃 세 송이를 꺾어다 걸어놓고 불태우자 구슬이 된다. 그 구슬을 입에 넣어 굴리다가 삼키게 되는데, 그 뒤 과양생의 처는 임신하여 삼 형제를 낳는다.
- ⑥ 과거에 급제한 삼형제는 문신에게 고사를 지내다 죽게 되고, 과양생의 처는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며 김치 원님에게 소지를 올린다.
- ⑦ 이 사건은 염라대왕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치 원님은 강림도령에게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하고, 강림은 큰 부인의 정성으로 문신과 조왕신의 도움을 받아 저승길을 헤쳐 나가 저승문 앞에 다다른다.
- ⑧ 염라대왕의 행차가 당도하자 달려들어 염라대왕을 잡아 묶으니, 염라대왕은 강림에게 먼저 가 있으면 스스로 가겠다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며 약속한다.
- ⑨ 강림이 이승으로 돌아오니 큰 부인이 그가 죽은 줄 알고 3년 상을 지내고 첫 제사를 지낸다. 강림은 큰 부인을 만나고, 부부는 만담정회를 나누며 염라대왕을 기다린다.
- ⑩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염라대왕이 등장하고, 염라대왕은 주천강 연못의 물을 마르게 하여 삼 형제의 뼈를 모아 살려내고 부모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과양생의 부부를 처형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 ⑪ 김치 원님과 염라대왕은 강림의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염라대왕이 강림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러자 강림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강림은 염라대왕 밑에서 이승의 사람을 잡아가는 차사가 된다.

### (1) 시간적 배경

<이승편>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은 작가가 정한 일정한 시간이다.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 시간으로, 작가의 작품 창작 배경을 근거로 하면, 용산 참사가 발생했던 그 시기를 작품의 주된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용산 참사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으로, 실제적 시간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승편>은 허구적 시간으로 실제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을 최대한 가깝게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허구이지만 진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이 실제적 시간을 바탕으로 했다는 근거는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고독사, 재개발 문제 등 실제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가상의 공간과 시간에 사실적인 부분을 드러내면서 만화가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이승편>에서 저승차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지 않지만, 가택신은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주거공간의 변화에 의해 소멸한다. 그래서 과거에 망자들을 데려오던 탄석차사, 단물차사 등을 비롯한 문전신 등이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승편>에 주된 인물로 등장하지 않고, 차사직을 은퇴하거나 소멸된 가택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주거공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전통주택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오늘날 주거공간의 변화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시하며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설정을 통해 가택신의 소멸과 위기 그리고 주거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승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은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며,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지금까지처럼 지속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택신의 전멸을 암시하며 암울한 가택신

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공간적 배경

가택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좌정한 구체적인 장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승편>만 하더라도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성주신, 조왕신, 축신, 철용신, 지신들은 각각 집안, 부엌, 뒷간, 장독대, 집터에 좌정한 신들로 집안 곳곳에 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가택신 중 가장 우두머리인 성주신을 비롯하여 집안 곳곳을 관장하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는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인 곳으로 인식하는가, 그것을 뛰어넘은 중요한 의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구분을 통해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선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연을 관찰한 후에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연을 관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과 물, 그리고 바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산이 있어야 하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결정하고 집을 짓고 삶을 시작한다.<sup>43)</sup> 인간이 공간을 이원적으로 인식하여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그렇지 않은 공간을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되며, 이는 공간으로 확장되어 삶의 공간을 중요한 곳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무속신화는 공간배경의 설정에 있어 본래 건국신화와는 특징을 달리한다. 건국신화가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가운데 신성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펼쳐나가는 것과 달리, 무속신화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역사성을 지니지 않는다. 실체가 불분명한 아득하고 막연한 공간이 배경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가운데 신이한 존재의 등장과 신이한 사건의 전개를 통해 그 공간에 신성성이 부여된다.<sup>44)</sup> 주거 공간 역시 가택신이라는 신적인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그 공간에 대한 신성성이 부여되고, 이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간들의

43) 표인주, 앞의 논문, pp.164~165.

44) 신동훈,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태릉어문연구』, 1995, p.590.

신성한 믿음을 지속시키는 작용을 한다. 삶은 죽음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공간인 ‘집’ 역시 가치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면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형성된다.

지금까지의 공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사무가와 <이승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서사무가와 <이승편>의 공간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무가에 나타난 공간성에 있어서 저승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거리의 측정이나 그곳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그 저승은 지상과의 수직공간에 위치하여 있지 않고 한없이 가서 만나는 수평공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5)</sup> 이 작품에서도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전개 상 열차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모아 <이승편>에서도 저승과 지상이 수평공간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오늘날 주거공간을 인식하는 현대인들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양식과 형태를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집의 공간배치와 가택신의 자리<sup>46)</sup>

집의 공간배치	소속 공간 또는 부속시설	자리 잡고 있는 가정신
살림채	큰방, 안방, 작은 방	삼신, 제석, 조상, 말명, 왕신
	부엌	조왕신
	마루(집의 중앙)	성주
부속채	마구(외양간)	우마신(마대장군)
	도장(고방 또는 곳간)	도장지신, 용단지, 업신, 농기구신
	방앗간	방앗간신(방아지신), 농기구신
	측간	측신(측간신, 변소각시)
마당과 부속시설	앞마당	마당신
	뒷마당	터주, 업신, 철룽, 천룽, 용단지, 철성
	담장	사신
	대문	수문신, 걸림
	우물	우물신

45) 김선풍, 김의숙, 장정룡, 이창식 공저, 앞의 책, p.249.

기타	생업현장	누에신, 인삼신 등
----	------	------------

위의 <표1>에서 보듯이 가택신이 좌정한 공간은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집안 어디에도 가택신이 부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에게 집은 안식처이자 삶의 터전이다. 더불어 가택신에게도 집은 자신들의 생성 및 소멸과 관련된 된 곳으로, 곧 신들의 생사와 직결된다. 이는 작품 속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주: 아파트에는 뒷간이 없다는 사실이야.

측: 그게 무슨 소리야? 뒷간 없는 집이 어딴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똥 안 싸냐?

성주: 아파트에는 양변기라는 게 있어서 물 내리면 똥도 같이 사라진대.

측: 어... 어째서?! 귀한 똥을 왜...?!

성주: 조왕이도 마찬가지로야. 아파트에는 부뚜막이 없어.

조왕: 뭐?! 그럼 난방을 어떻게 해?

성주: 가스 보일러로 덥힌대.

(...중략...)

조왕: 그래도 오빠는 좀 낫지 않아? 성주 오빠는 성주단지가 있으니까.

성주: 이사갈 때는 성주단지 안에 있는 쌀을 꺼내 먹고 단지는 산에 묻고 가는 거야.

위의 인용문<sup>47)</sup>은 오늘날과 과거의 주거공간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거처를 걱정하는 세 가택신의 대화이다. 과거와 오늘날 주거공간의 양상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더 이상 가택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가택신이 스스로에 대한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가) 안방 또는 대청

46)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pp.128~129.

47) 주호민, 『신과 함께』상, pp.44~47.

성주신은 집을 지키는 우두머리 격의 신이다. 가신 중 최상위의 신이며, 하위의 가신을 총괄하며 집안의 안택을 담당한다. 성주대감이라고도 불리며, 한 집안의 가장인 대주를 위한다.<sup>48)</sup> 성주신은 가택신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의 신이므로 집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에 모셔지는데, 안방과 대청이 대표적이다. 두 공간은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안방은 집 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대청은 집의 중앙에 위치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들 두 공간이 공존하는 경우 조상신이 주로 대청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대청이 없고 안방만 있는 경우 당연히 안방에 거주한다. 대청은 집의 중앙에 위치하며 곡물의 저장 공간으로 안채의 중심 공간이다. 대청이 조상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안방은 살아있는 후손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변별된다. 물론 대청이 없는 경우는 안방이 조상들의 공간이면서 후손들의 공간이다.<sup>49)</sup> <이승편>에서 101-5번지는 대청이 없는 경우로 안방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며, 성주신의 신체인 성주단지 역시 안방에 모셔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안방은 가정의 중심 공간으로서 공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방은 주인 부부의 취침 공간이자 가족 전체의 식사 공간이고 환담의 공간이다.<sup>50)</sup> 한 가정의 주체가 머무르는 곳이 안방이며, 당연히 집안의 대소사 역시 안방을 중심으로 밖으로 퍼져나가므로 안방은 집안의 중심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마루는 나무 바닥으로 온돌이 아니며 일상적인 침식의 공간이 아니다.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침식은 역시 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루는 잔치나 제사, 굿과 같은 신성한 행사를 하는 곳이고, 또 그 집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잣집이나 가문을 자랑하는 집에서는 마루를 장식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뒤주는 이러한 장식의 중심이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집일수록 마루를 크게 육간대청으로 장식한다. 마루에는 집의 수호신인 성주신을 모신다. 마루가 집의 중앙에

48) 최진아, 앞의 논문, 김명자 외, 앞의 책, p.256.

49) 표인주, 앞의 논문, p.171.

50) 표인주, 위의 논문, p.165.

있고 대들보가 그 위로 지나고 있다. 대들보는 건축 구조상 가장 중심이 되는 들보이고,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 대들보에 성주신의 신체를 붙여서 신을 모시는 것은 성주신이 관할하는 공간이 마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삼년 동안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따로 상방을 꾸미기도 하지만, 상 동안에 이 마루에다 상청을 차리기도 한다. 이렇게 마루라는 공간은 종교적이고 신성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 (나) 부엌

과거에 부엌은 여성들만의 활동공간으로 여겨졌다. 요즘에는 그 의미가 많이 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성들이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부엌은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한 곳으로, 노일제대 귀일의 딸에 의해 주천강에 빠져 죽어 추운 물속에 있었으니 하루 세 번 불을 쪄라는 의미로 부엌에 좌정하게 된다.

<그림 7> 부엌과 축신의 관계<sup>52)</sup>



위의 <그림7>은 몸이 아파 누운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동현이와 함께 예비 소집일에 다녀올 것을 권유하는 성주신과 조왕신에게 축신이 거부의 뜻을 내비치는 장면이다. 본인이 조왕신을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밥을 챙겨 드릴테니,

51)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pp.190~191.

52) 주호민, 앞의 책(상),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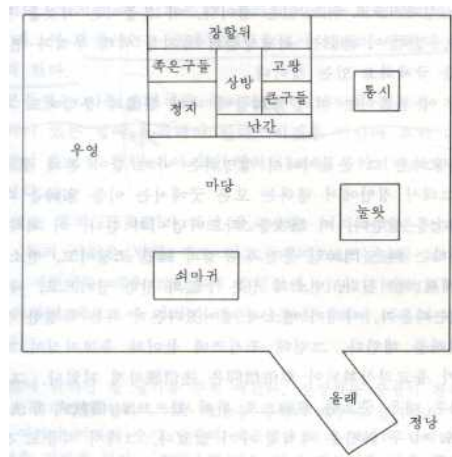
조왕신에게 다녀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측신은 부역에 출입금지인거 몰라?”라는 조왕신의 대사는 측신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는 측신이 부역이라는 공간에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부역과 뒷간의 공간적 분리의 근거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공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공간적 특징은 이어서 살펴볼 ‘뒷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다) 뒷간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조왕신을 물에 빠트려 죽이고, 일곱 형제를 속이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남선비의 처인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죽어 각각 조왕신과 측신으로 좌정한다. 좌정하기 전 두 인물은 남선비를 사이에 두고 처첩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로, 그 관계는 두 가택신이 각각 좌정한 부역과 뒷간의 공간적 분리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

<그림 8> 집의 배치도<sup>53)</sup>



큰구들과 작은구들은 침실이고, 상방은 거실이며 고팡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다. 정지는 부역이며 통시는 변소다. 이와 같은 건조물 배치에서 건물 본채

5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270.

의 방가름은 다소 변형될 수 있지만, 부역과 변소의 배치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어느 집이든 부역과 변소는 반대쪽에 배치하여 멀리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변소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몇 마리 낳았다든가, 젖을 잘 먹는 다든가, 돼지에 대한 말을 부역에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변소의 것은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 하나, 지푸라기 하나라도 부역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sup>54)</sup>. 이는 서사무가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중심으로 한 처첩으로 등장하며, 이 둘은 처첩 간의 갈등을 형성한다. 이렇게 원수와 같은 사이이므로 부역과 변소는 반대쪽에 멀리 배치하고,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습은 부역과 변소 간의 위생적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본풀이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국 이 신화는 위생생활의 유지를 위해 부역과 변소 간의 생활양식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sup>55)</sup>

#### (라) 장독대

철용신은 천신과 용신의 복합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천신은 지배자 중심의 신앙이며, 용신은 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농경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신격이다. 용신은 다시 천룡과 지룡으로 나누어지는데, 천상계에 거주하는 신격을 천룡, 지상계에 거주하는 신격을 지룡이라 칭한다.<sup>56)</sup>

가택신으로서 철용신의 신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집 뒤 자체를 천룡이라고 생각하여 뒤꼍에 쌀이나 한지를 담고 입구를 봉한 동우를 묻고 그 위를 짚 주저리를 세우는 형태이다. 주로 진도와 무안에서 발견된다. 이는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 터주의 신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남도지역에서는 천룡을 터주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로, 장독대에 모시는 경우로 특별한 신체가 없고 물을 담은 중발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

54) 현용준, 위의 책, pp.270~271.

55) 현용준, 위의 책, pp.271~272.

56) 표인주, 앞의 논문, p.173.

는다. 철용신의 신체는 여타의 가택신처럼 항상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모시는 경향이 많다.<sup>57)</sup> <이승편>에 등장하는 철용신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장독대에 모셔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의 설명에서처럼 장독대 위에 물을 담은 중발을 올려놓는 것은 배제된다. 장독대는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醬)을 보관하는 곳으로, 부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작가가 성주신, 조왕신, 측신 다음으로 철용신을 중요한 가택신으로 등장시켜 철용신이 좌정한 장독대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서사무가에서 제시된 가택신의 신체를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여 <이승편> 속에 그려냈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가택신이 좌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신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집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승편>에서는 성주신, 조왕신, 측신 다음으로 철용신이 비중 있는 가택신으로 등장한다. 이는 철용신이 가정에서 사회로 공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연적인 연계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신으로서 집집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장독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마) 대문

제주에는 한국 본토식의 대문이 거의 없다. 한국 본토식의 대문은 집의 출입구에 걸어 잠그는 커다란 문인데, 제주에서는 그런 식의 대문을 만들면 들어오는 제물이 막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어 만들지를 않는다.<sup>58)</sup> 다만 정남이 대문을 대신하여 사람의 부재 유무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승편>에는 성주신, 조왕신, 측신, 철용신이 주된 가택신으로 등장하며, 그 이외의 가택신은 주거공간의 변화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설정되었다. 작가는 소멸된 여러 가택신 중에서도 문에 좌정한 문왕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문, 특히 대문은 집과 밖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그 중요성이

57) 표인주, 위의 논문, p.174.

58) 현용준, 앞의 책, 집문당, 2005, p.130.

부각된다. 출입구는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열림의 장치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넘나들 수 없게 바뀌어버린 오늘날의 출입구는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단절을 의미한다.

### 3) 인물의 유형과 형상화 방식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더불어 인물은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거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대립하면서 사건을 전개시킨다. 이러한 성격들의 기능은 플롯 형성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근대소설 이후의 소설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 속에서의 개인, 개인과 사회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과 자아확립과 인간탐구가 소설 목적의 핵에 있기 때문에 소설의 여러 요소 가운데서 가장 우위에 놓여야 할 것이 성격론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개성 있게 형상화하고,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독자는 그러한 소설을 실패작으로 간주하게 되고 공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sup>59)</sup>

<이승편>은 갈등관계에 따라 작중인물들의 성격이 나타나므로 본 논의에서는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나누어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편>은 부조리한 현실을 헤쳐 나가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과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긍정적 인물이 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인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의 구분 기준은 작품의 주제에 맞추어 주인공인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를 중심으로 그들을 도와 집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을 긍정적 인물로, 반대로 그들과 대립하는 인물을 부정적 인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립을 이루거나 그들을 돕던 인물의 성격이 변화를 거치는 인물들은 중간적 인물들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인물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

59) 윤명구, 이견청, 김재홍, 감태준 공저, 앞의 책, p.179.

해 각각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긍정적 인물

### (가) 김천규 할아버지와 김동현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소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천규 할아버지는 1년 전 겨울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손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손자를 위해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현이의 취학통지서가 날아들고, 할아버지는 동현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할아버지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온다. 가택신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용역업체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며 집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동현이는 세상의 병폐를 모르는 순진무구한 여덟 살 아이로 묘사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과 자신이 처한 환경이 다름을 인식하지만, 그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에 놀러온 친구가 집이 더럽다며 식사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의 정도를 드러낸다. 이처럼 두 인물은 집을 지키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집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 때문에 긍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나) 가택신

성주신, 조왕신, 측신은 서사무가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상징된다. 성주신은 아버지의 역할을, 조왕신은 어머니의 역할을, 측신은 첩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중심인물로 <이승편>의 중심 배경이 되는 '집'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이승편>에서도 성주신은 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왕

신은 어머니의 역할을, 측신은 동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성주신

<성주풀이>에서 성주신으로 좌정한 황우양은 부인이 제시한 금기를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 천하궁으로 성주를 이룩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집 짓는데 필요한 연장이 없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부인이 그 연장을 마련해주어 집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승편>에서 성주신은 <성주풀이> 속 황우양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택신 중에서도 두령의 위치에 있는 성주신은 집 전체의 일에 관여하는, 오늘날 리더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무엇보다도 집과 관련 된 일에 앞장서서 행동한다. 이는 동현이 아빠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동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노쇠한 할아버지가 동현이를 돌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용역업체들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주신을 서사무가 속 인물보다 더 남성답고, 더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부진 체격에 수염을 기른 힘센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다만 각목을 두 손으로 쉽게 부러뜨리는 모습은 현신을 통해 육신을 드러냈지만 신적인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성주신은 할아버지와 동현이를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며 몸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가택신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택신 중에서도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성주신의 성격이 작품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 ② 조왕신

<문전본풀이>에서 조왕신으로 좌정한 여산부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무곡장사로 보내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직접 찾으러 나서는 적극적인 인물이다. 즉 남편을 중심으로 한 ‘부인’의 모습을 통해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승편>에서는 주로 부역일을 담당하며, 특히 동현

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역할, 즉 모성애를 드러낸다.

서사무가와 <이승편>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서사무가에서는 비교적 남편인 남선비와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하고, <이승편>에서는 부역이나 동현이와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편에서 동현이로 전이되는 변화는 어머니의 역할을 상징하는 조왕신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왕신이 자신의 아들인 녹디성인을 동현이로 태어나도록 한 것이 밝혀진다. 결국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될 동현이는 조왕신에 의해 다시 문왕신이 되고, 그들은 함께 저승으로 향한다. 이는 조왕신이 끝까지 동현이를 지키고자 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성애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왕신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여 집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철용신의 생각을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한다.

철용: 신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인간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조왕: 고추장독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 중략 …)

조왕: 성주신은 집을 지키려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 물으세요. 철용신의 장독은 어디에 있나요?

철용: 그야 집에…<sup>60)</sup>

성주신이 인간들의 싸움에 괜히 끼어들어 소멸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철용신이 깨진 성주단지들을 보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조왕신이 나타나 성주신이 소멸하게 된 이유가 집을 지키려던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한다. 가택신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만 지키면 되지만 현신을 통해 자신들의 육신을 드러내고 활동한다. 집을 지키고,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60) 주호민, 앞의 책(하), 애니박스, 2011, pp.66~67.

가택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철용신은 자신의 신체인 장독대에서 장맛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으나 성주신의 소멸과 조왕신의 조연으로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측신

성주신, 조왕신에 비해 측신은 서사무가에서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측신이 신으로 좌정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신으로 좌정하기 전의 인물은 노일제대귀일의 딸로 악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측신으로 좌정하게 되면서 그는 악인의 모습에서 긍정적 인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측신을 구분하여 긍정적 인물의 성격을 보이는 측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편>에서 측신은 까칠한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작가가 측신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화장실은 특히 부엌과 대립을 이루는 공간이었다. 단순히 위생의 개념에 의해 구분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첩’이라는 지위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첩’의 입장에서는 본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이행해야 하며, 그것이 <문전본풀이>에서는 여산부인을 죽이고,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계락을 세우는 행위들로 드러난다. 이처럼 처와 첩은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엌과 변소가 같이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과거에 부엌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자 어머니와 자식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더욱이 부엌은 변소가 가까이 해서는 안됐다.

그러나 오늘날 대표적 주거공간인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존재한다. 화장실을 부엌과 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방 안에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위생의 변화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화장실을 비교적 깨끗한 공간으로 생각한다. 과거에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물을 저장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그 안에서 배설 이외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먹는 것 못지않게 배설하는 장소도 깨끗하고 편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부엌과 화장실이 집 안에서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여산부인을 더 이상 처첩간의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공간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측신을 긍정적 인물로 제시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측신은 할아버지의 일을 돕는 성주신과 부엌일을 담당하는 조왕신을 대신해 동현이를 돌보는 주된 인물이다. 동현이와 예비소집일에 함께 하고,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저승차사들에게 혼자 남은 동현이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기도 한다. 특히 아직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동현이에게 붙으려는 홍역귀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보이는 측신의 적극적인 모습은 초반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쉽게 제안하던 모습과 달리 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 ④ 철용신

철용신은 성주신, 조왕신, 측신에 비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그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승편>에서 철용신은 초반에 집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던 성주신의 소멸을 괜히 인간들 일에 끼여들어 억울하게 죽은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왕신에 의해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후 철용신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동안 물리적인 해를 입히던 용역업체 직원들을 찾아가 한울동을 떠나라며 협박하거나, 한울동 주민들을 돕는 영웅으로 변화한다.

철용신의 진가는 집을 부수기 위해 찾아온 용역업체와의 대결에서 드러난다. 대별왕의 명령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택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승으로 온 저승차사들에게 측신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떠날 수 없다며 저항하지만, 이내 조

왕신은 자신들을 도와준다면 저승으로 따라가겠다고 약속한다. 굴삭기로 집을 부수려는 용역업체 사람들을 막아달라는 조왕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저승 차사들도 현신을 하지만, 굴삭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할 수 없이 경인일<sup>61)</sup>에 더욱 강해지는 사인검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만 굴삭기를 붙들고 막아서고 있는 철용신의 목숨도 보장 할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철용신이 “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네… 머뭇거리다가 다 죽일텐가…?”라며 사인검으로 굴삭기를 멈출 것을 지시하고, 결국 굴삭기와 함께 철용신도 소멸하게 된다. 사인검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도 소멸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집과 다른 가택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 (2) 부정적 인물

### (가) 구청직원

재개발 동의를 받으러 한울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구청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집집마다 철거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틀에 따라서만 행동할 뿐, 철거민들이 처한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구청직원들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법의 내용을 강조하며 어떻게 해서든 철거민들에게서 동의를 받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모습만을 보이므로 부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나) 용역업체

용역업체는 직접적으로 철거민들을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여러 부정적 인물들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강한 편에 속한다. 이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일처리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한울동에 남아 있는 철거민들을 내쫓는 일을 진행한다.

---

61) 『신과 함께 : 이승편』에서는 경인일이 ‘12일마다 돌아오는 호랑이날’임을 나타낸다는 설명으로 각주를 달았으며, 이 시기를 사인검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두 세력은 법적인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용역업체의 부도덕적인 행위가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조합장에게 들은 쓴소리와 얼마 남지 않은 철거 기한의 압박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게 변해 간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굴삭기를 몰고 무작정 찾아가, 집을 무수겠다며 협박한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존재가 되고 반대로 약자에게는 한 없이 강한 존재가 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용역업체와 철거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이 나타난다. 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공간에 나타난 저승차사와 그들의 손에 쥐어진 망자의 명부에 적힌 동일한 주소가 여러 철거민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용역업체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철거민들과 직접적인 갈등을 형성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역업체에 의한 철거민들의 계속되는 희생은 용역업체의 부정적인 모습을 뒷받침 한다.

#### (다) 경찰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김천규 할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자의 입장으로 개입하는 인물이다. 저승차사와의 대결을 위해 가택신이 집을 비운 사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에 찾아와 물건들을 부수고 도망친다. 범인을 잡기 위해 김천규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찾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잡아 달라 신고하고, 며칠 뒤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한다. 그러나 경찰은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할아버지 역시 직원들을 때렸으니 쌍방폭행에 해당하니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권유한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집안의 물건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 행동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김천규 할아버지 역시 그들이 잘못된 행동에 맞는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그러나 경

찰은 쌍방폭행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유도한다. 용역업체 직원과 김천규 할아버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누가 봐도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라) 조합장

조합장은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용역업체의 대표와 만남을 가져,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가하는 인물로 한 차례 등장한다. 자신들은 투자를 했으므로 그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일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한다. 조합장과의 만남 이후 그 동안 느슨하게 일을 진행하던 용역업체는 더 이상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단 한 번 등장한 조합장에 의해 용역업체는 한층 더 잔인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이는 101-5번지의 붕괴와 더 많은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진다.

### (3) 중간적 인물

#### (가) 저승차사

저승차사는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감으로써 동현이네 집의 완전한 와해를 부추기는 존재로 등장한다. 저승차사들이 망자를 데려가기 위해 집을 찾아가면, 그 집을 지키는 가택신과 대립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승편>에서 유독 가택신과 저승차사의 대결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다. 저승차사들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으로 향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이므로 저승차사들이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동현이가 겪게 될 상황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가택

신과 동현이의 입장에서 저승차사들의 등장은 부정적으로 인식 될 수밖에 없다.

김천규 할아버지는 동현이와 함께 찾은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쓰러져 누워 있는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일직차사와 월직차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조왕신과 측신이 그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뒤늦게 저승차사의 정체를 눈치 챈 성주신이 집에 도착하면서 일직차사는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는 대결임을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떠난다. 그리고 얼마 후 저승차사의 우두머리인 강림과 함께 두 차사가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가택신과 대결을 펼쳐 승리하지만,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가택신의 행동으로 대결의 의미가 흐지부지 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의 횡포로 집 상태마저 엉망이 되고, 강림은 성주신으로부터 한울동과 동현이네 집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보고가 있기까지 세 달간의 말미를 주기로 약속한다. 대별왕의 명령에서 비롯된 사건 전개이긴 하나, 저승차사들은 가택신을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 집을 허물려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결구도를 형성한다.

즉 저승차사는 집을 잃게 될 상황에 있는 동현이와 가택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부재를 부추기는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인물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가택신을 구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막기 위한 행동을 보이므로 중간적 인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수석차사

수석차사는 저승삼차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승편>에서는 강림도령이 수석차사로 등장한다. <차사본풀이>에서도 나오듯이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망자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가 된다. <이승편>에서도 강림도령은 저승삼차사의 리더로 등장하며, 거침없는 성격의 인물로 나타난다.

강림도령은 용역업체의 공격을 받은 동현이네 집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가택신으로 하여금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

는 시간을 주기로 성주신과 약속한다.

## ② 일직차사

수석차사가 부재했을 경우 그를 대신해 월직차사와 함께 망자들을 데려오는 인물이다.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월직차사와 이승에 도착하자, 집에 남아있던 조왕신과 측신이 그들을 막아선다. 가택신이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동현이가 겪게 될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지만 일직차사는 “이 사정 저 사정 다 따지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소.”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일직차사는 망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한울동을 배회하던 중 동현이의 뒤를 쫓는 홍역귀를 발견하고, 집으로 찾아가 홍역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현이의 위험을 알린다. 동현이에게 붙으려는 홍역귀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역일을 하고 있던 조왕신과 할아버지와 함께 고물을 줍기 위해 집을 비운 성주신을 대신해 측신이 혼자 힘으로 두 홍역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때 동네를 배회하던 일직차사가 나타나 측신을 도와 홍역귀를 물리친다.

동현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발견한 월직차사가 저승으로 향하던 길에 함께 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사는 미안한 게 없는 거다. 미안해도, 미안한 게 아니야. 줄초상도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마라.”라며 저승차사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한다.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명부를 읽으려는 월직차사에게 동현이가 임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직차사는 저승차사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잃지 않고, 나름의 냉철한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혼자 홍역귀를 막고 있는 측신을 도와 홍역귀를 무찌르거나, 동현이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동은 일직차사 역시 중간적 인물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③ 월직차사

저승삼차사 중 유일한 여성 캐릭터이다. 탕화에는 일직차사와 월직차사가 남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이승편>에서는 작가가 월직차사를 여성화하여 표현하였다. 그에 맞게 월직차사는 여린 감성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수석차사와 일직차사가 차사로서의 냉철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내면에 숨겨진 인정 많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월직차사는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정이 많고, 착한 성격의 인물로 그려진다.

김천규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집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동현이가 겪게 될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일직차사에게 다음에 재방문 할 것을 제안하거나, 동현이네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다가 다시 오게 돼 미안하다고 울먹이는 모습은 그의 성격이 다른 저승차사들과는 상반됨을 잘 보여준다.

#### ④ 용역 업체 아르바이트생

성호는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인물이다. 처음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데 죄책감을 가지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일의 진행과 함께 주변의 다른 직원들의 부추김이 늘어갈수록 그들처럼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인물로 변화한다.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신체 공격 포인트를 활용하여 철거민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일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는 그의 행동을 용역업체의 우두머리가 칭찬할 만큼 성호는 인간성을 상실한, 도리와 이치에 어긋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로 변해간다.

부모님을 따라간 장례식에 도착해서야 김천규 할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외할아버지임을 알게 되면서 큰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어느 순간 회의를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모습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행동의 잘못됨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중간적 인물로 볼 수 있다.

## IV. 『신과 함께 : 이승편』의 서사무가 활용 양상

용의 주장처럼, 신화, 전설, 민담에 아키타입이 존재한다면 민중의 의식과 가치관이 반영된 서사무가에서 우리는 그 가치관과 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작가가 서사무가를 활용한 작품을 창작한 의도와 연결되므로, 작가가 <이승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IV장에서는 작가가 서사무가 요소들을 이야기의 창작 과정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욕망과 갈등에 따른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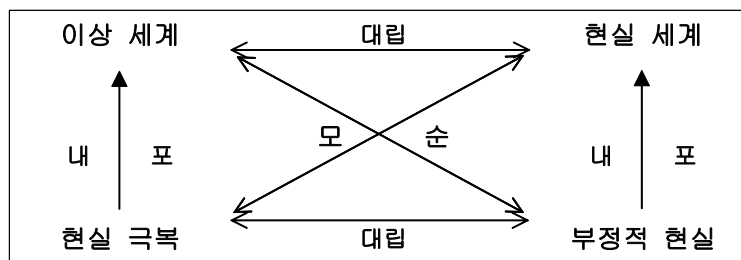
그레마스는 이항대립구조를 통해 작품 속 이야기 주체와 대립자간의 갈등 관계를 대립, 모순, 내포의 관계로 드러내어 욕망과 갈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그레마스가 제시한 이항대립구조를 활용하여 <이승편>의 작중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 분석을 통한 서사무가의 활용 양상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편>에 제시된 현실에서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 있는 동현이의 경우 가정은 해체되었지만, 동현이와 할아버지가 지내는 가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옥의 유지는 가택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들의 등장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한다. 서사무가에서 성주신은 부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 일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왕신과 측신은 갈등을 형성하지만, <이승편>에서는 동현이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도움으로 동현이가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승편>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부정적이고 모순된 현실의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 세계 도달에 있다. 아래 <그림9>에서처럼 <이승편>은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 안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약자들이 존재하고, 신들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바라는 이상 세계를 추측하게 한다.

<그림 9> <이승편>의 이항대립구조



예를 들어, 동현이는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인물이다. 동현이는 성주신, 조왕신, 측신의 등장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인물이다. 왜냐하면 동현이가 처한 부모의 부재상황은 세 가택신의 등장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이승편>에서 동현이는 부모가 없는(현실세계),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로 그려진다. 더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온 죽음의 위기, 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신이 다름을 인식하는 과정(부정적 현실)은 어린 동현이가 처한 상황을 더 가혹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가택신의 등장으로 실제로는 부재한 부모의 자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채워지게(현실극복) 된다. 즉 동현이는 부모의 부재라는 상황에 있지만, 가택신의 등장으로 부모의 빈 자리가 채워지고, 이는 동현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성립(이상 세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천규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성립된다. 김천규 할아버지 역시 자식과 부인을 잃고, 홀로 손자를 키우며(현실세계) 살아가고 있다. 재개발 문제로 구청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형성하고, 죽음의 위기(부정적 현실)를 맞게 된다. 그러나 가택신의 등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갈등을 형성하는 세력과 맞서게(현실극복) 된다. 결국엔 집이 무너지고, 할아버

지는 죽게 되고, 모든 게 흩어져버리지만, 가택신의 등장으로 잠시나마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상세계)을 품음으로써 철거민이 가지고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물뿐만 아니라 재개발 문제를 적용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현실 세계)이다. 그러나 철거민들은 그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용역업체(부정적 현실)가 등장한다. 그러나 철거민들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택신이 등장(현실 극복)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고통 받는 철거민들을 돕는다. 결국 <이승편>은 용역업체와 철거민들의 극에 달한 대립을 보여주고 철거민들의 희생을 암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더 이상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설 곳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이상 세계)를 바라게 되고, 그것이 곧 이상 세계가 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작품의 서사 전개 양상은 부정적인 현실에 있지만, 작가는 그러한 현실을 벗어난 이상 세계의 모습을 독자들이 그려낼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그것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 2. 내용과 형식의 변용

<이승편>은 그동안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소재를 바탕으로 현대적 요소들과의 조화를 이루어 독자들이 서사무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작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첫째로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 소재로 삼고 사건 전개의 핵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급속한 변화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며, ‘신’이라는 존재를 익숙한 캐릭터로 나타내어 거리감을 좁혔다. 셋째로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중심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문제의 활용으로, 두 번째는 캐릭터의 입체화, 세 번째는 서사무가의 갈등해결과 화해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문제의 활용

<이승편>은 가택신에 초점을 맞추고 재개발이라는 상황을 엮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비롯한 전통주택의 붕괴로 인해 벌어지는 비윤리적·비인간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여기에 저승차사들까지 등장시켜 삶의 공간을 뛰어 넘은, 죽음의 공간까지 제시하면서 죽음의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소외, 철거민 무력진압을 비롯하여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용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대학생의 모습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승편>이 서사무가 요소를 활용하여 창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작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자칫 서사무가가 갖고 있는 무속성으로 인해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의 사회문제와 엮어가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사무가 요소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승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물음은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한다. 결국 작가는 오늘날 사회문제와 서사무가의 결합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할뿐만 아니라, 서사무가에 대한 흥미와 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 2) 캐릭터의 입체화

<이승편>의 주인공은 철거민들이지만, 가택신과 저승차사들이 철거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철거민들 못지않게 큰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신의 등장과 함께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캐

릭터 양상은 작품을 더 흥미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신들의 복장과 성격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승편>에는 가택신과 저승차사들이 신으로 등장하고, 그 외의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이다. 저승차사는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저승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은 양복을 입고 현대적으로 변모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상이나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승차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검은 옷에 무서운 눈과 그에 대비되는 창백한 얼굴로 대표된다. 말 그대로 저승차사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그러나 <이승편>에 등장하는 저승차사들은 우리의 상상, 드라마, 영화 속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들의 용모는 인간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 그들의 복장은 하얀 셔츠에 검은색 넥타이와 양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다. 이러한 저승차사들의 모습은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나름의 반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승차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섭고, 거부감을 주는 용모가 아닌 평범한 인간의 얼굴로 표현하여 저승차사로서의 역할은 드러내면서 그들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저승차사를 상징하는 검은색이라는 요소는 그대로 차용하되, 복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양복이라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소재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가택신은 인간들이 착용하는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등장한다. 이는 그들이 빈 집에 모여 할머니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할 때도,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 온 저승차사와 대결을 펼칠 때도, 홍역귀를 무찌르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저승차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저승차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됨으로써 가택신이 착용한 의복이 주는 의미가 더욱더 부각된다. 물론 저승차사들 역시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거친 결과로 양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택신처럼 신적인 상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택신이 할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 현신하여 등장하

고,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며 동현이를 돌보는 것을 거리감 없이 수  
공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가택신이 집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적절한 근거가 된다.

신들의 성격 변화 역시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하는 요소이다. 여기에서 성격  
의 변화라 하는 것은 서사무가와 <이승편> 속 인물들의 성격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상상 속 혹은 영상 속에 나타난 신들은 근엄하고, 단호하며, 규  
율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작품 속 신들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  
람들이 상상하는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인간처럼 여러 감정을  
느끼고, 안타까운 상황에 흔들리는가 하면, 연민과 본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  
습을 보인다.

수석차사인 강림도령은 “이 세상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면 죽을 사  
람 하나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현이네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가택  
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저승삼차사들 중 일직  
차사인 이덕춘은 여성으로 등장하며, 강림도령과 월직차사와 달리 정이 많은  
인물이다. 월직차사 역시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심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차사  
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직차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택신은 집의 수호신으로 재개발로 집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김천규 할아  
버지와 동현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김천규 할아버지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저  
승차사들과 대립하는 신들이다.

성주신은 <이승편>에서 조왕신과 측신을 이끌어 집을 지키고 할아버지와 동  
현이를 보살피는 리더로 그려지며, 조왕신 역시 주로 자신이 좌정한 부역에서  
시간을 보내며,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등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측신은 서사무가 속의 노일제대귀일의 딸 보다는 신으로 좌정한 후의 측신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된다.

측신은 변소신이면서 살을 거두어준다고 한다. 신체가 없는 건궁으로, 대단  
히 두려운 신으로 여긴다. 변소에 빠지면 으레 떡을 찌고 간단하게나마 의례를  
행한다. 심지어 밖에서 거름더미(오물)에 빠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물 독이  
살기가 있다고 보고 그 살을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다.<sup>62)</sup> <이승편>에 등장하는

62) 김명자, 앞의 논문, p.134.

측신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악행도 불사하는 서사무가 속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이승편>에서도 측신은 성주신이나 조왕신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까칠한 면모를 어느 정도 드러내기는 하지만,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거짓과 계락을 꾸미는 것은 기본이며, 살인에 이르기까지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며, <이승편> 속 측신과 상반되는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캐릭터의 변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승편>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성격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독자들이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서사무가를 활용한 작품을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 3) 서사무가의 갈등해결과 화해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문제의 활용과 캐릭터의 입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사무가에 나타나는 민중의 가치관을 창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사무가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래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무당은 나라굿을 주재하는 제사장이자 정치군장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느 민족이나 인류 역사의 이른 시기에는 제사권과 정치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제정일치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제사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나라 단위의 굿을 주재하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비시로 노래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우리의 건국신화들은 바로 이런 나라굿에서 불리던 신화의 잔재로 이해된다.<sup>63)</sup>

최고 권력층에서 담당하던 나라굿은 불교가 유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격하되고 무당의 신분도 한 단계 낮아지게 되는데, 이 시기를 무·불습합기<sup>64)</sup>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 무속은 나라굿의 기능을 불교에게 물

63) 박경신, 앞의 논문, 강등학 외, 앞의 책, p.320.

64) 학자에 따라 무·불습합기 혹은 무·불교체기로 불리지만, 두 용어에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는

려주고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중심의 제화초복 제의로 전환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신라 말인 8세기말 경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성리학이 유입되고 그것이 통치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과정에서 무속은 한층 더 기층화하고, 무당의 신분은 한 단계 더 격화되어 결정적으로 천민으로 전락했다.  
65)

이후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되어 왔다. 굿이나 무속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굿, 무속, 서사무가 등은 인간의 삶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사무가가 신들의 좌정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좌정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선징악을 큰 주제로 담고 있으며,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주제를 전달하는데, 이는 곧 인간세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무속이나 굿 그리고 서사무가 등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이 설부른 판단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승편>은 서사무가 요소들을 활용하여 창작한 작품으로, 한울동 재개발 문제에 부딪힌 철거민들의 고충을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 그리고 그들의 생활공간인 101-5번지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작가가 재개발 문제를 철거민들의 시각에서 풀어냈다면 지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나 가택신과 저승차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오늘날 죽음의 문제와 주거공간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인간성에 대한 문제까지 드러내면서 보편적이지만 새로운 시각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

판단 하에 본 논의에서는 인용문에 제시된 무·불습합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65) 박경신, 위의 논문, 강등학 외, 위의 책, p.322.

## V. 결론

신화는 향유민의 원형으로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을 아우른다. 이는 칼 구스타프 융이 ‘아키타입’, 즉 ‘원형’이라는 용어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어 집단 무의식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의식으로 설명한 내용이 뒷받침한다. 이처럼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융의 주장처럼 모든 인류에게는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며, 이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공유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신화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창작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서사 무가의 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서사무가를 활용한 작품들이 성공을 거듭에 따라 신화를 비롯한 서사무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신과 함께』는 웹툰이라는 용이한 접근성과 현대적 서사의 구현을 통해 서사무가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웹툰이라는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독자들에게 소개 된 『신과 함께: 이승편』의 서사무가 활용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신과 함께: 이승편』을 최소 사건과 시퀀스로 정리하여 전체적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나열한 결과 철거민에서부터 법에 이르는 연결 관계가 형성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절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양상을 다섯 개의 대립구조로 나누어 그에 따른 서사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다섯 개의 대립구조는 재개발 예정지에 거주 중인 김천규 할아버지와 동현이를 중심으로 철거민들의 소외된 삶과 그들을 내쫓기 위한 용역업체의 비도덕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최종적으로는 그 대립양상을 통해 질서와 무질서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에 접근 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작가가 갈등양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사회적 소외계층의 궁핍과 무관심’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철거민의 소외와 궁핍’에서는 작가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여, 여러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에서는 고독사 문제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과 단절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비롯한 서사무가 활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로서 1절에서는 작가의 현실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장에서 분석한 <이승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과 ‘대립적 삶의 양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인간사회의 해체’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였다. 2절에서는 작가가 <이승편> 창작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비롯하여 저승차사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사본풀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사건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물·사건·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사무가 작품과 <이승편>을 비교·분석하여 활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서사무가 활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작가가 서사무가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 하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절에서는 그레마스의 이항대립구조를 활용하여 작중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분석하여 작품 속에서 서사무가가 어떠한 의미로 활용 되었는지 파악하였다. 2절에서는 <이승편>이 현대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독자들이 서사무가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작된 작품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사회문제의 활용, 캐릭터의 입체화, 서사무가의 갈등해결과 화해라는 세 가지의 활용 양상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서사무가 요소들을 활용하여 창작된 작품을 분석하여 서사무가에 대한 활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신과 함께』의 작품 모두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고, 인물·사건·배경만을 중심으로 서사무가와 <이승편>을 분석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 따른 해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신과 함께』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화, 특히 서사무가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 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 주호민, 『신과 함께 : 이승편』상, 애니북스, 2011.  
\_\_\_\_\_, 『신과 함께 : 이승편』하, 애니북스, 2011.  
서대석, 박경신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조희용, 『한국구비문학대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2. 단행본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1.  
김명자 외, 『한국의 가정신앙』상, 민속원, 2005.  
김선풍 외,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윤명구 공저, 『문학개론』, 현대문학, 2007.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최길성, 『한국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한교경,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201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현용준, 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C. G. 용, 한국용연구원C.G.용저작번역위원 옮김, 『원형과 무의식』, 솔, 2002.

### 3. 논문

-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웹툰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정책』5권, 가톨릭대학교 콘텐츠산업과 문화정책연구소, 2011.
-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 서해숙, 「가정신앙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 『남도민속연구』제7집, 남도민속학회, 2001.
- 손오규, 「산수문학에서의 산수와 산수미」, 『인문학연구』4, 경상대 인문학 연구소, 1998.
- 신동훈,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태릉어문연구』vol.5-6,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5.
- 유예, 「원천소스로서 무속신앙 활용방안 연구: 웹툰 <신과 함께>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이춘우, 「조세희 소설 연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제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 임혜선, 「강풀의 웹툰 『순정만화』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정수희, 「전통문화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 웹툰 <신과 함께-이승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제2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 표인주, 「가택신앙 신격의 질서체계와 변동양상」, 『목포대학교어문학』2, 목포대학교, 2000.
- 황인순, 「제주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 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32, 한국기호학회, 2012.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 일반신 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제주도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 양상 :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현원필,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연구: 제주 서사무가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4. 웹사이트

[서화숙의 만남] 웹툰계의 신성 <신과 함께> 주호민, 한국일보, 2012년 7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2275945>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작가 인터뷰 신화라는 뼈대에 만화라는 반짝이는 살을 입히다, <북DB>, 2012년 11월 23일,  
[http://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43921](http://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No=43921)

<Abstract>

## A Study on the Application Aspect of Narrative Myths in 『With God : This World』

Park, Hyang-ah

A major in Korea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how values of the people in Narrative Myths appeared in 『With God : This World』 in which aspect by analyzing a cartoon 『With God : This World』 which was created by using Narrative Myths, and to illuminate the purpose that the author intended to deliver through this wor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Narrative Myths and 『With God : This World』 through novel analytic methodology to understand concrete application aspect of Narrative Myth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characters and elements are making conflict around 'house' in 『With God : This World』, and the story revolved around and took place accordingly.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was considered as microscopic confrontation and macroscopic confrontation, and showed confrontation aspect between displaced(removed) people and service company and even confrontation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ork with a focus on the awareness of reality of the artist, the writing delivered importance of

space and revealed irrational society, aspects of vicarious life, and dissolution of human society by connecting changes of residential space with redevelopment issue and showing crisis and death of evicted people and the house god.

Thirdl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pplication and transformation aspect of Narrative Myths in writing, not many parts were used in the writing in narrative aspect and expressed characters of god around their roles by mainly introducing them. In addition, issues as absence or deterioration of religious faith of the ceremony subject which derived from changes of residential space were revealed by suggesting their seated space around shamanistic house spirits. Also, it was identified that 『With God : This World』 is sharing historicity by making real social problems into events.

Fourthly, as a result of substituting desire and conflict of characters on binary opposition structure of Greimass, it was identified that 『With God : This World』 is showing horrific reality of underprivileged people around us today, and is showing images of the ideal world contrary to the reality.

Lastly, it was verified that 『With God : This World』 is revealing values of the people of Narrative Myths by showing images of irrational reality and problems of life and death through application of social issues and stereogram of characters.